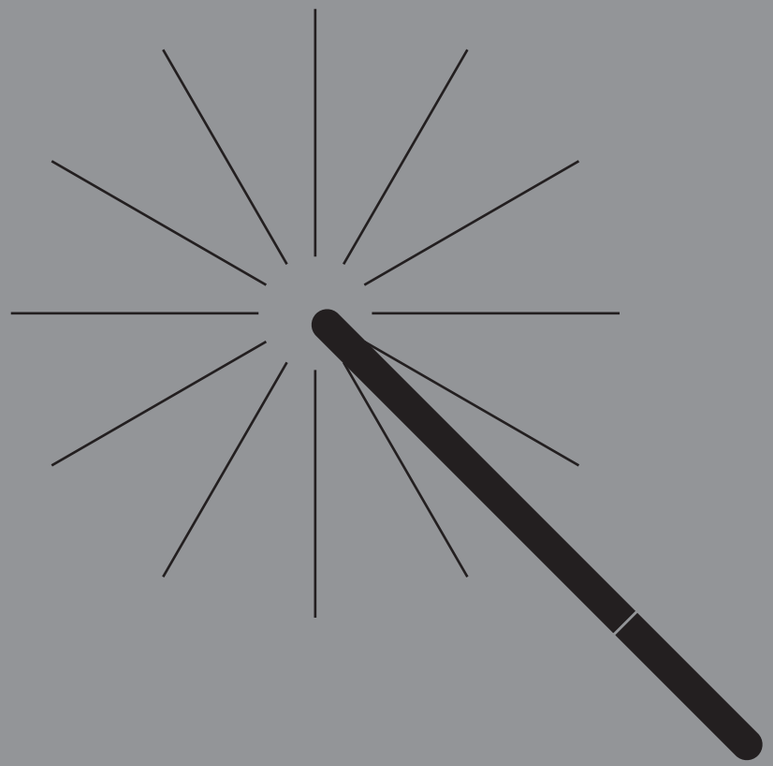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우수시설 국외연수(영국)
결과보고집







목 차

06 I.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소개

08 II. 2024년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우수시설 국외연수
1. 국외연수 개요
2. 방문 도시 소개
3. 연수 일정

12 III. 국외연수 세부 내용

26 IV. 국외연수 참여자 후기

72 V. 참고자료
1. 주요 방문기관 정보
2. 연수 참여자 이력 및 소감



본 국외연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우수시설 담당자,
상주작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SPO

I.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소개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 사업 소개

○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학작가가 전국 도서관, 문학관, 서점에 상주하며 지역 주민 대상으로 문학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 선정된 문학 시설에는 전문인력과 문학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방문객 개발 및 시설의 활성화를 돕고, 상주 작가에게는 인건비와 창작공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문학상주작가 사업은 작가와 문학 시설, 그리고 이용자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의 문학 수요를 창출하고 문학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작가가 도서관·문학관·서점에 상주하며 지역 주민 대상으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문학 수요 및 문학 향유 기회를 활성화하고, 문인들의 일자리 제공 및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 사업 추진 방식

- (1단계) 참여시설 공모
- (2단계) 시설-작가 온라인 매칭박람회
- (3단계) 시설별 작가채용

○ 지원 내용 및 규모

상주작가 인건비, 고용부담금, 문학프로그램 진행비

○ 사업기간 (상주작가 활동기간)

2025년 3월~12월/10개월 (2025년 5월~11월/7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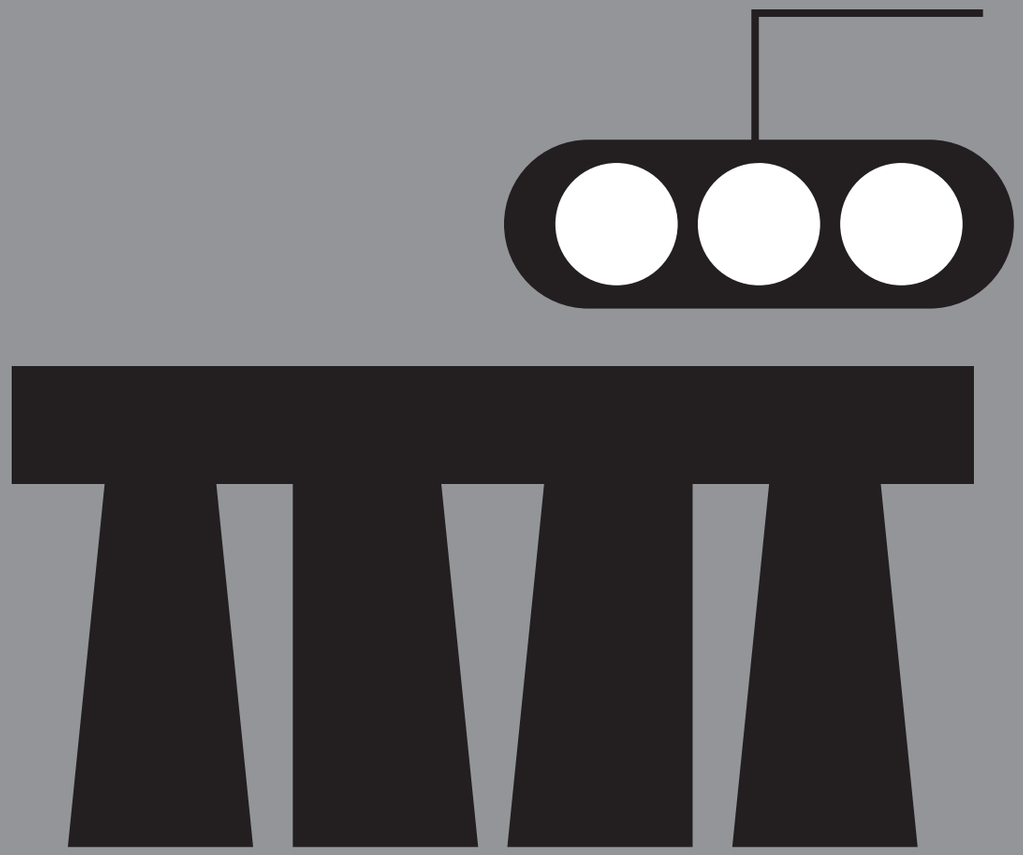
○ 주최/주관/후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 참여 문학시설

총 77개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3개소, 비수도권(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북) 44개소

Ⅱ. 2024년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우수시설 국외연수



1. 연수 개요

1. 연수 개요

ㅇ 연수 목적: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수 시설 담당자와 상주작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상 연수로 영국의 문학축제, 시설, 기관 탐방

ㅇ 연수 기간: 2025.08.18.(월) ~ 08.25.(월) / 6박 8일

ㅇ 연수 장소: 영국 (런던, 에든버러, 노리치)

ㅇ 참여 인원: 총 8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성별	비고
1	가온도서관	시설 담당자	송은정	여	
2		작가	김병운	남	소설
3	거마도서관	시설담당자	김미경	여	
4		작가	흥흥	남	그림책
5	노작홍사용문학관	시설담당자	조온윤	남	
6		작가	정란희	여	아동문학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팀장	김나영	여	
8		대리	김여란	여	

2. 연수내용

ㅇ (국제 문학 축제 참석 및 리서치)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 등 국제 문학 축제 참석을 통한 운영 사례 조사 및 국제 문학 네트워크 확장

ㅇ (우수 문학시설 운영 벤치마킹) 영국의 도서관, 서점, 문학 도시 등 우수 문학 시설 방문을 통해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벤치마킹

ㅇ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관계자 업무협의) 문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험 교류를 통한 관련 기관 네트워킹

2. 방문 도시 소개

1. 런던

ㅇ 런던(London)은 영국 문학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문학 도시로, 다양한 문학 기반 시설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문학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ㅇ 런던은 세계 3대 국제 도서 박람회 중 하나인 런던 북페어(London Book Fair)의 개최지로, 출판·번역·저작권 교류의 중심지이다. 또한 London Literature Festival, Bloomsbury Festival, Southbank Centre Literary Events 등 다양한 문학 축제가 매년 개최된다.

ㅇ 주요 문학 기반 시설로는 대영도서관(British Libary),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Shakespeare Globe), 찰스 디킨스 박물관(Charles Dickens Museum), 키츠 하우스(Keats House) 등이 있다. 시 전문 도서관인 National Poetry Library나 Pushkin House(러시아 문학 문화센터) 등 다국적·장르별 문학 기관이 존재하며 시민 참여형 문학 활동이 활발하다.
ㅇ 런던의 출판사는 블룸즈버리, 소호, 피츠로비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Penguin Books, Bloomsbury Publishing, Faber & Faber 등이 있다.
ㅇ 런던 대학교(UCL, King's College, SOAS 등)는 영문학 관련 학문 연구의 중심지이며, SOAS 대학 한국학과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반 (문학, 역사, 사회, 영화 등)을 공부할 수 있다.

2. 에든버러

ㅇ 에든버러(Edinburgh)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이자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UNESCO City of Literature)로 지정된 세계 최초의 도시이다(2004년 지정). 도시 전역에 걸쳐 문학 관련 기관, 축제, 작가 기념관, 출판 문화가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시민과 방문객이 문학을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ㅇ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북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축제로, 1983년 시작되어 매년 8월 개최된다. 1,000명 이상의 작가, 출판인, 독자가 참가하며, 강연·토론·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에든버러는 영국 내 주요 출판 중심지 중 하나로, Canongate Books, Polygon, Birlinn 등 중견 독립 출판사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서점과 독립출판 문화가 활발하며, 독립서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

3. 노리치

ㅇ 노리치(Norwich)는 잉글랜드 동부 노퍽(Norfolk) 주의 중심 도시로, 2012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UNESCO City of Literature)로 지정되었다. 영국 내에서는 에든버러에 이은 두 번째 문학 도시로, 중세 시기부터 문학과 인쇄문화가 발전한 지역이다. 현재도 활발한 문학기관, 출판문화, 교육기관을 기반으로 시민의 문학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ㅇ 주요 문학 기반 시설로는 현재 국립문예창작센터(National Centre for Writing)과 문학번역센터(Literary Translation Centre)가 있으며 문학 창작과 번역 분야에서 지역 문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ㅇ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 (University of East Anglia, UEA)는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예창작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0년에 창작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이안 매큐언(Ian McEwan), 카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 등 노벨상·부커상 수상 작가 다수를 배출했다. 문학연구, 번역학, 출판학 전공과 연계되어 지역 문학 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ㅇ Noirwich Crime Writing Festival은 매년 9월 개최되는 범죄소설 전문 문학축제로, 국내외 작가와 독자가 참여하는 세미나·낭독·토론회로 구성된다. National Centre for Writing과 UEA가 공동 주최한다.
ㅇ 출판 산업에서는 독립출판사 및 문학잡지가 활발하며, Gatehouse Press와 Eggbox Publishing 등이 대표적이다.

3. 연수 일정

구분	일자	장소	주요 일정
1일	8/18(월)	인천→런던	ㅇ 인천 출발 → 런던 도착
2일	8/19(화)	런던	ㅇ 영국문화원 본부 문학 담당 관계자 미팅 ㅇ 영국국립도서관 공간 투어 및 관계자 미팅 ㅇ 워드 온더 워터 서점 방문
3일	8/20(수)	에든버러	ㅇ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 참관 및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 관계자 미팅 ㅇ 스코티시 스토리텔링센터 방문 및 관계자 미팅 ㅇ 에든버러 프린지 공연 관람 ㅇ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방문 ㅇ 에든버러 중앙 도서관 방문
4일	8/21(목)	에든버러	ㅇ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트러스트 관계자 미팅 ㅇ 스코티시 시 도서관 방문 ㅇ 에든버러 작가 박물관 관람
5일	8/22(금)	노리치	ㅇ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 투어 및 관계자 미팅 ㅇ 워터스톤즈 서점 방문 ㅇ 노퍽 앤 노리치 밀레니엄 도서관 방문 ㅇ 노리치 대성당 도서관 방문 ㅇ 북 하이브 독립 서점 방문
6일	8/23(토)	런던	ㅇ 세실 코트 독립 서점가 방문 ㅇ 포일스 서점 방문 및 관계자 미팅 ㅇ 해처드 서점 방문 ㅇ 셜록홈즈 박물관 관람 ㅇ 다운트 북스 서점 방문
7일	8/24(일)	런던	ㅇ 해리포터 스튜디오 탐방 ㅇ 런던 출발
8일	8/25(월)	런던→인천	ㅇ 인천 도착

III. 국외연수 세부 내용



1. 영국 문학축제 참석 및 관계자 간담회

가.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 참관

ㅇ 일정: 2025년 8월 19일 ~ 8월 20일

ㅇ 행사 장소: Edinburgh Futures Institute

ㅇ 주요 내용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이 특히 잘 구성된 축제로, Schools Programme(청소년·학교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주간) 프로그램 참관.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간과 독립된 큐레이션을 선보이며, 어린이 관객을 위한 행사장, 스토리 텐트, 일러스트 공간 등이 마련되었고, 워크숍, 그림책 만들기, 캐릭터 창작 수업 등이 진행됨
- 무료 독서 자료 제공, 교통비 지원, 무료 또는 할인티켓 제공 등 학교 단체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강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사가 운영됨(Primary Schools Gala Day를 통해 모든 참석 학생에게 무료 도서 제공, 책 사인 등 제공)

***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

ㅇ 행사일정 : 2025년 8월 9일~24일(16일간 진행)

ㅇ 장소: 에든버러 퓨처스 인스티튜트(Edinburgh Futures Institute)에서 개최됨 (작년에 이어 두 번째)

ㅇ 주제 : 핵심 테마는 “Repair(회복)” – 사회적, 감정적, 환경적 균열을 낫게 하자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

ㅇ 프로그램 구성 : 약 700여 개 행사, 641명의 작가 참여(35개국, 6개 대륙 출신)

ㅇ 운영 목표 : 회복을 주제로 낙관적이고 우호적인 토론장 조성, 사회·정치·환경 등 ‘깨진 것들을 수선’하고자 함

※ 한국 관련 운영 프로그램

ㅇ 황석영 작가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명 : Hwang Sok-yong: The Voice of a Divided Nation
- 주요내용 : <황석영: 분단국가의 목소리 (Hwang Sok-yong: The Voice of a Divided Nation)> 라는 제목의 대담 진행. 축제 디렉터 겸 CEO인 제니 니븐(Jenny Niven)과의 대담을 통해 황석영의 작품 《철도원 삼대(Mater 2-10)》를 중심으로 작가의 문학 세계를 조명. 한국 문학이 지닌 시대적 맥락, 분단의 경험, 역사와 개인서사의 관계 탐구. 문학과 정치·역사의 교섭 가능성, 한국문학의 국제화 방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ㅇ 산업 프로그램: 웹소설 글로벌 흐름

- 주요 내용 :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중국, 일본 등)에서 대두되는 웹소설(Web Novels)의 글로벌 독서 혁명과 디지털 서사 트렌드에 대해 논의

ㅇ 동아시아 및 한국 관련 글로벌 이슈 토론

- 주요 내용 : 동아시아 전반—특히 한국의 문화 영향력, 최근 정치 이슈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의 지정학적, 문화적 맥락을 전문가들이 다루는 패널 토론









나.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글로벌 잉크(Global Ink)담당자 미팅

○ 일정 : 2025년 8월 20일

○ 외부 참여자 : Alan Bett(Head of Literature & Publishing), Beth Cochrane(Literature Officer)

*** 글로벌 잉크(Global Ink)**

○ 페스티벌 내 인더스트리 포커스 프로그램으로, 국제 문학 전문가 네트워킹과 글로벌 트렌드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

○ 참가자: 출판 관계자, 작가, 번역가, 축제 기획자 등

○ 논의 주제: 지속가능한 펀딩, 정치적 환경 속 프로그램 기획, 문화 협업, 도서 수출 전략 등

○ 2025년 행사에서는 주영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황석영 작가 초청 토크를 진행하고, 선승혜 원장이 패널로 참여.

※ 2025년 글로벌 잉크 주요 패널

○ 패널 1 – Books That Travel

- 유럽·북미 시장에서 성공하는 책을 조명, 스코틀랜드 도서의 해외 수출 전략 및 트렌드 논의

○ 패널 2 – Born Digital: Web Novels and the Global Reading Revolution

- 웹소설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글로벌 확산, 문화적 영향력 및 새로운 독자층 형성 검토

○ 주요 내용

- 단순 세션이 아니라 산업 내 국제 교류와 전략 논의의 장으로 기능
- 황석영 작가 초청은 주영한국문화원 및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협력으로 성사되었으며 해외작가 초청은 예산 문제로 주로 해당국 대사관 및 기관과 협력함. 유료프로그램(£15.5)임에도 전석 매진
- 2026년부터는 국제 컨퍼런스를 포함하는 확장판으로 발전할 예정이며, 이는 북 페스티벌의 산업적 위상 강화와 동시에 스코틀랜드의 국제 문화교류 허브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됨
- 스코틀랜드 정부로부터 EXPO 기금 £100,000 지원을 약속받아, 2026년에는 기존 포맷을 확장한 국제 컨퍼런스를 신설하고, 프로그램을 3일간(8월 17~19일) 운영할 예정이며 해외작가의 초청도 확대 계획

다.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Creative Scotland) 문학팀 미팅

○ 일정 : 2025년 8월 20일

○ 외부 참여자 : Alan Bett(Head of Literature & Publishing), Beth Cochrane(Literature Officer)

*** Creative Scotland**

○ 스코틀랜드의 문화예술·문학 지원 기관으로, 문학 및 출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금 배분·프로젝트 지원·국제 교류를 추진함

○ 문학팀은 작가와 출판사 지원, 문학 펀딩 운영, 국내외 문학 확산을 핵심 임무로 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문학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교류를 지원

○ 4대 전략 : 다양성, 공정보상, 환경 프렌들리(가이드라인 등), 국제(스코틀랜드에 해외 전문가가 오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문학팀 주요 업무

- 작가·출판사·문학 단체에 대한 창작 지원 → 개인 창작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문학 경력 구축을 돕는 보조금, 멘토링, 사업 지원 운영
- 문학 펀딩 관리 → 공모를 통한 지원금 신청 심사, 배분,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관리
- 스코틀랜드 문학의 국제 확산 → 해외 도서전 참가, 번역 지원, 국제 출판 네트워크 연결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제공

○ 주요 내용

- 문학팀은 스코틀랜드 문학 생태계의 핵심 지원 기관으로서, 작가 개인부터 출판사·문학 단체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이를 통해 문학 산업 전반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국제 교류 전략의 일환으로 Momentum 프로그램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단순 교류를 넘어 에든버러 축제를 활용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개별 맞춤형 일정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과 장기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 Outriders 프로젝트와 같이 모멘텀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협업 모델은 해외 작가와의 공동 창작·출판·전시로 이어져, 단발적 교류가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 협력의 성과 확인
- 스코틀랜드의 지역 문학 레지던시인 모니액 보어(Moniack Mhor), 코브 파크(Cove Park) 등 단순 창작 공간이 아니라 국제 문학 네트워크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작가가 스코틀랜드 현지 출판사 및 번역가와 협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높은 의의를 지님
- 스코틀랜드 문학의 국내 기반 강화 + 국제 확산이라는 이중 전략을 통해, 창작 생태계와 글로벌 문학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2. 유관 기관 네트워킹 및 관계자 간담회

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관계자 미팅

ㅇ 일정: 2025년 8월 19일

ㅇ 외부 참여자 : Rebecca Hart(Senior Relationship Manager Literature)

*** British Council(영국문화원)**

ㅇ 영국의 주요 문화외교 기관으로, 교육·문화·예술·언어 분야를 통한 국제협력을 촉진함

ㅇ 본부가 장르별로 나눠져 있고, 전세계 100여국에 지사가 있어 영국 내 다양한 파트너십을 매개하는 역할

ㅇ 작가, 번역가, 출판사, 페스티벌, 레지던시 등 문학 생태계 전반을 해외와 연결하고 국제 네트워크 확장 및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런던도서전(London Book Fair), 헤이 페스티벌(Hay Festival) 등 글로벌 문학 행사와 연계해 국제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

ㅇ 주요 내용

- 국제 문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영국의 문학 창작자·번역가·출판사를 해외 문학계와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문학 페스티벌·번역·레지던시를 통해 국제 작가들이 영국 문학계와 접촉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출판인, 문학기획자 등의 교류에 관심(런던 북페어에도 editor's trip 프로그램 운영)
- 헤이 페스티벌과 같은 대표적 행사에서는 글로벌 시리즈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교류 모델을 구축
- 종합적으로, 영국문화원은 문학을 단순히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보지 않고 국제 관계와 문화 외교의 매개체로 인식하며, 교류·번역·출판·축제·레지던시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

나. 에든버러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트러스트 관계자 미팅

ㅇ 일정 : 2025년 8월 21일

ㅇ 외부 참여자 : Dr Harriet MacMillan(Director)

*** Edinburgh UNESCO City of Literature Trust**

ㅇ 2004년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문학도시 지정 이후, 글로벌 문학 네트워크 확장과 문학 프로젝트 추진을 담당하는 비영리 기관

ㅇ 영국 내 유네스코 문학도시는 총 5개(에든버러, 노리치, 노팅엄, 맨체스터, 엑시터)

※ 주요 활동

- 공공 공간 문학 프로그램(성벽, 보도, 역 등 도시 공간에 시와 문학 문구 설치를 통해 시민에게 문학 경험 제공, 독서 캠페인 등 시민 참여형 문학 활동 운영)
- 국제 협력 프로그램
  · 멜버른 문학도시와 협력, "Let's Get Lyrical" 캠페인 등 진행
  · 2024년 유네스코 문학도시 20주년 기념, 60여 국제 도시 대표 참여 문학도시 컨퍼런스 개최
- 문학 교육·보급 프로그램
  · 스코틀랜드 북 트러스트(Scottish Book Trust), 시 도서관(Poetry Library) 등과 협력
  · 초기 작가들에게 프로필 사진·전문 소개글 준비 과정 지원

ㅇ 주요 내용

- 도시 전체를 문학 공간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중시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역 문학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
- 프로그램 기획 시 단순 행사 개최가 아닌, 교육·보급·일상적 체험을 결합한 문학적 접근을 지향
- 문학도시 네트워크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적 협업과 레지던시 기회를 확장하고 있으며, 국내외 문학인들에게 실질적 창작·연계 지원 제공
- 영국 내 5개의 문화도시들과 공동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 협력이 원활한 편이며, 부천, 원주와도 교류하고 있음

다.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National Centre for Writing) 투어 및 관계자 미팅

ㅇ 일정: 2025년 8월 22일

ㅇ 외부 참여자 : Holly Ainley(Head of Programmes and Creative Engagement), Paula Sanchez(Head of Communications and Development), Dan Scales(Development Manager)

*** National Centre for Writing (NCW)**

ㅇ 노리치의 드래곤 홀(Dragon Hall)을 기반으로 문학 창작·번역·교육·커뮤니티 허브로, 역사적 건물(Dragon Hall)을 중심으로 지역·국제 문학 활동을 운영함

ㅇ 레지던시 외에도 Writing Hub, 워크숍, Dragon Hall Social(네트워킹 이벤트) 등 작가·주민 간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함

ㅇ Arts Council England의 NPO 지원을 받고 있음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레지던시 사업을 통한 NCW 역대 참여 작가

연도	참가 작가	장르
2014	배수아	소설
2015	황선미	아동문학(동화)
2016	오주영	아동문학(동화)
2017	백가흠	소설
	한유주	소설
2018	전성현	아동문학(동화)
	황선미	시
2019	강영숙	소설
	김혜연	아동문학(동화)
2022	신정근	소설
2023	이연주	희곡
2024	서수진	소설
2025	최지인	시

*공간(드래곤 홀) 특징

- 15세기(약 1430년경) 부유한 상인이 무역 거래를 위해 지은 중세 상업용 거래소 건물로 출발하여 용(Dragon) 장식이 한 마리 남아 있어 드래곤홀이라 불리움
- 이후 건물 용도가 계속 변화했으나(지난 100년간 올드펍으로 사용된 사례, 웨딩홀 활용 등 지역 행사 용도로 사용된 이력 존재), 현재는 문학 공간으로 복원되어 작가 레지던시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함
- 오래된 건물 특성상 창문 위치·구조가 통일적이지 않고, 과거 주인 변동에 따른 증·개축 흔적이 남아 있으며 로컬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도 큼

ㅇ 주요 내용
- 레지던시는 창작이 초점이지만 작가의 니즈에 따라 커미션이 달라지며, 개인별 작업에 맞춰 프로그램을 디자인함
- NCW 아카데미, Writer's Toolkit Online (온라인 전문 강좌), 워크숍 등 작가 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됨
- 국제 문학 교류 프로그램(ILX, International Literature Exchange) 플랫폼 운영 – 국제 문학 전문가 네트워크 및 협업 기회 제공
- 페스티벌 및 문학행사로 노퍼크&노리치 페스티벌, 노리치 범죄문학 페스티벌(Noirwich Crime Writing Festival) 등 운영
- NCW 온라인 창작 허브(Writing Hub) 운영으로 문학 자료·아이디어 공유 및 문학 생태계 확산
- 최근 김혜순 시인의 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2015년 입주했던 한강 작가, 데보라 스미스 참여 스토리 등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음






3. 영국 문학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

가. 영국 국립도서관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ㅇ 일정 : 2025년 8월 19일

ㅇ 외부 참여자 : Jamal Mohamed(Community Engagement Manager), Jon Fawcett(Head of Events), Luisa Elena Mengoni(Head of Asian and African Collections), Sara Chiesura(Head of East Asian Collections), Eleanor Cooper(International Engagement Manager)

*** British Library(영국 국립도서관)**

ㅇ 세계 최대 규모의 국립 도서관 중 하나로, 런던 세인트 판크라스(St Pancras) 본관과 요크셔 보스턴 스파(Boston Spa) 수장고를 운영함. 1973년 「British Library Act 1972」 발효로 대영박물관에서 독립했으며, 1998년 현재 건물이 공식 개관됨

ㅇ 연간 약 600만 명이 방문하는 영국 대표 공공건물로, 총 1억 7천만 건 이상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누구든 독자 패스(reader's pass)를 발급받으면 자료 열람 가능

ㅇ 주요 수장고: 런던 본관 지하(자료의 1/3 보관), 요크셔 보스턴 스파(자료의 2/3 보관, 로봇 자동화 관리)

ㅇ 한국 컬렉션: 약 15,000권 단행본, 500여 종 정기간행물, 31점의 필사본 보유. 대표 자료로 『기사진표리진찬의궤』(1809), 『아미타경 제32권』 금니 사경(1390년경) 등이 있음

ㅇ 주요 내용
- '모두에게 열린 도서관'이라는 철학을 강조하며,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대중이 국가 지식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 청소년·가족·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행사, 청년층의 디지털 창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소개됨
- Young Creators Lab 사례를 통해, 젊은 세대가 소장품을 디지털 매체로 재해석하고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도서관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
- 단순 보존 기관이 아니라 문학과 문화 교류의 플랫폼임을 부각. JLF London, European Writers' Festival 등 국제 페스티벌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유럽 각 지역의 문학을 런던에서 연결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나.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센터(Scottish Storytelling Centre) 방문 및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우수 공연 관람

ㅇ 일정: 2025년 8월 21일

ㅇ 외부 참여자: Daniel Abercrombie(Head of Programming)

*** Scottish Storytelling Centre**

ㅇ 세계 최초의 전문 스토리텔링센터로, 공연·교육·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구술 전통과 현대 스토리텔링 문화를 확산하고 있음

ㅇ 교회 자리에 세워졌던 이전의 Netherbow Arts Centre를 대체하는 현재의 센터가 2006년에 문을 열었고, 이 건물은 스코틀랜드 교회(Church of Scotland)가 소유하며, TRACS (Traditional Arts and Culture Scotland)가 프로그램 파트너

ㅇ 네더보우 극장, 스토리텔링 코트, 조지 매케이 브라운 도서관 등 세 곳의 이벤트 공간에서는 라이브 스토리텔링, 음악, 연극, 무용, 가족 행사 및 전시가 열리며, 활기 넘치는 해기스 박스 카페, 존 녹스 하우스 박물관, 스토리텔링 서점으로 구성

ㅇ 주요 내용

- "이야기는 눈에서 눈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여행자의 격언이 이 센터의 철학
- 게일 문화, 구술 전통을 보여주고자 하며, 문학·시·스토리텔링 영역에서 전통과 현대 예술을 융합하고 있음
- 스토리텔링 견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신규 스토리텔러에게 멘토링과 무대 기회를 제공, 또한 스토리텔링, 극, 음악, 전시, 워크숍, 가족 행사, 축제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활발한 연간 프로그램을 운영
- 인터내셔널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Scottish International Storytelling Festival)

· 1989년 시작, 올해로 36회째. 세계 최대 규모의 구전 스토리텔링 축제로, 매년 10월 중순말, 에든버러 페스티벌 이후 조용해지는 시기에 운영(2025년: 10월 22일11월 1일, 주제: Lights of the North)

· 장소는 네더보우 극장 외에도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에든버러 시 박물관·미술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행사 진행

· 스토리텔링, 공연, 음악, 그림자극, 워크숍, 가족 행사 등 다양한 형태 포함하며, 스코틀랜드 작가 포함된 아티스트 공모 형식으로 기획·제작됨

* 2024년도 스코틀랜드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공연

- 공연명 : A Wolf Shall Devour the Sun
- 2024년 스코틀랜드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의 의뢰로 제작된 공연으로 2025년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공연을 선보임
- 그림자 인형극, 음악이 어우러진 2인극(더기 맥케이와 제미마 테위스)으로 진행됨
- 공연 내용 :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사냥으로 멸종된 늑대의 이야기로, 고대 신화, 몽환적인 이미지, 몽환적인 사운드스케이프는 북유럽 신, 아일랜드의 변신술사, 시베리아 늑대아이들이 스코틀랜드의 황야와 트란실바니아 산맥을 누비는 경계 공간을 열어줌





다. 영국 주요 도서관 및 운영 프로그램 현황 답사

ㅇ 영국의 문학도시에 위치한 대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여 장서 관리, 특화 서비스, 지역밀착형 운영 모델 등을 탐방

ㅇ 지역 주민과 연계한 프로그램, 교육·문화 행사 운영 방식 등 국내 문학관·도서관 운영 개선에 참고할 요소 확인



1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ㅇ 일정 : 2025년 8월 20일 ㅇ 주요 내용 - 스코틀랜드 최대의 도서관으로, 약 2,400만 점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 로버트 번스(Robert Burns), 월터 스콧(Sir Walter Scott),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L. Stevenson) 등 스코틀랜드 주요 작가의 필사본과 초판본을 소장 - 학술 연구, 전시, 디지털 보존 사업 등을 통해 스코틀랜드 문학 유산의 핵심 보관소 역할을 함



2	에든버러 중앙 도서관	ㅇ 일정 : 2025년 8월 20일 ㅇ 주요 내용 - 1890년에 개관한 스코틀랜드 최초의 무료 공공 도서관이자, 에든버러 시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장소 - 도서 대출과 더불어 문학 이벤트, 저자와의 만남, 언어 교환 모임 등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벌어지며,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 기간에는 라이브 낭독회, 아카이브 전시,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공간으로 확대 운영함 - 고지도, 오래된 신문, 지역 신문기사 스크랩, 도시계획 자료, 사진 등 보관하고 있어 지역사 연구자, 문학/문화 기획자들이 자주 찾는 공간



3	스코틀랜드 시 도서관	ㅇ 일정 : 2025년 8월 21일 ㅇ 주요 내용 - 현대 및 고전 시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공 도서관이자 연구 기관 - 유럽 전역의 시집을 소장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게일어(Gaelic)와 스코츠어(Scots)의 시 자료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음. 한국 시 번역본도 일부 소장하고 있음 (고은, 김혜순 등) - 교사에게 '시 커리큘럼 키트'(교실용 창작 워크시트, 낭독 안내 자료)를 제공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시 창작 수업을 제공

4	노퍽 앤 노리치 밀레니엄 도서관	ㅇ 일정 : 2025년 8월 22일 ㅇ 주요 내용 - 노리치 중심부 포럼(The Forum) 건물 내 위치하고 있으며 영국 내 대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공도서관 중 하나로, 문학 행사와 독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 지역 문학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지역 작가 지원 및 청소년 독서 활성화 사업 운영



5	노리치 대성당 도서관	ㅇ 일정 : 2025년 8월 22일 ㅇ 주요 내용 - 노리치 대성당의 회랑 1층에 위치하여, 고문헌과 현대 신학 자료가 함께 소장된 형태로 운영됨 -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쇄본 책을 포함한 역사가 깊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 신학 자료들이 대출 가능 자료로 분류되어 있음 - 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희귀 자료나 역사적 문서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도 함



라. 영국 주요 서점 방문 및 벤치마킹

ㅇ 독서강국 영국의 대형·전통·독립·이동형 등 다양한 형태의 서점 방문

ㅇ 서점이 단순 판매공간을 넘어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사례를 확인



1	Word on the Water	ㅇ 일정 : 2025년 8월 19일 ㅇ 주요 내용 - 1920년대 네덜란드식 운하 바지선에 차려진 보트 서점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함 - 운하 규정 때문에 주기적으로 위치를 옮기며 운영해야 했지만 (14일마다 이동해야 하는 규정 등) 2015년에 마침내 영구 계류 허가를 받고, 그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 - 고전 소설, 문학, 논픽션, 시, 아동서 등 다양한 장르를 고루 취급하며, 신간과 중고 도서 모두 취급



2	Water stones	ㅇ 일정 : 2025년 8월 22일 ㅇ 주요 내용 - 1982년에 설립된 서점 체인으로 영국 내 대략 30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유럽 최대의 전문 서점 체인 중 하나 - 각 점포는 지역 독자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저자 낭독회, 북 토크, 신간 발표 행사 등을 연다.



3	The Book Hive	ㅇ 일정 : 2025년 8월 22일 ㅇ 주요 내용 - 지역 독립서점으로, 장르 구분이 아닌 서점 주인의 큐레이션 방식으로 도서 배치 - 지역 문학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문학 축제, 작가 강연, 낭독회, 신간 출판 행사, 아동 워크숍 등 등 지역 문학 이벤트를 주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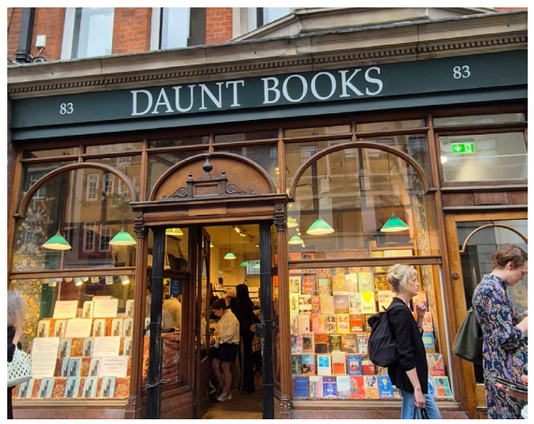
4	Foyles	ㅇ 일정 : 2025년 8월 23일 ㅇ 주요 내용 - 1903년 설립된 런던 대표 대형서점으로, '책의 성당'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장서(20만권)와 상징성을 지니며 하루 평균, 3~4천 명 방문 **- Charing Cross Road 지점에서는 한국 문학 작품과 번역서를 전시하고 판매하며 영국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을 소개하고 있음**



5	Hatchards	ㅇ 일정 : 2025년 8월 23일 ㅇ 주요 내용 - 1797년 John Hatchard가 런던 Piccadilly에 설립한 서점으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서점 중 하나로, 여러 세기를 거쳐 지금까지 명성을 이어오고 있음 - 영국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댈러웨이부인>에도 나온 서점으로 지역 정체성, 역사성, 고유 콘텐츠 보유



6	Daunt Books	ㅇ 일정 : 2025년 8월 23일 ㅇ 주요 내용 - 1990년에 James Daunt가 설립한 서점으로 고전적 요소가 남아 있음 - 국가별로 여행서를 큐레이션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독립서점 - 작가 강연·사인회 등 활발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진행



마. 영국 작가 및 도서 관련 대표 문화시설 탐방

ㅇ 다양한 전시 형태의 문화시설 탐방을 통해 문학작품과 작가의 삶을 전시·체험·관광 자원으로 확장하는 방식 학습

ㅇ 문학 콘텐츠가 문화유산 및 관광산업과 결합하는 구체적 모델을 파악



1	에든버러 작가 박물관	ㅇ 일정 : 2025년 8월 21일 ㅇ 주요 내용 - 로열 마일의 골목 안쪽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작가들의 삶과 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박물관 - 박물관에는 스코틀랜드 작가, 로버트 번스, 월터 스콧,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작품 세계와 인생을 추억하는 유품들을 중심으로 구성 - 역사적인 건축물에 위치하여, 문학과 건축·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



2	셜록홈즈 박물관	ㅇ 일정 : 2025년 8월 23일 ㅇ 주요 내용 - 런던 베이커 스트리트 221B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속 셜록 홈즈의 가상 거처를 실제 공간으로 구현 - 1881~1904년 사이 홈즈와 왓슨이 거주한 설정에 따라 빅토리아 시대 가구와 소품, 사건 기록 등으로 구성된 방들을 관람할 수 있으며, 문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고유 콘텐츠 구성



3	해리포터 스튜디오	ㅇ 일정 : 2025년 8월 24일 ㅇ 주요 내용 -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실제 세트, 의상, 소품, 특수효과 등을 전시한 체험형 스튜디오. - 호그와트 그레이트 홀, 다이애건 앨리, 덤블도어의 사무실 등 주요 공간을 그대로 재현함 - 대중문화 IP를 활용한 공간 연출 방식과 관람객 몰입도 제고 방식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IV. 국외연수 참여자 후기



연수 일지 : 지역, 연계, 참여

가온도서관 김병운 작가

런던에서의 일정 가운데 단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이었다. 영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곳인 만큼 규모가 압도적이었고, 자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인쇄물이 납본되는 곳답게 도서, 지도, 악보, 신문, 음반 등 매우 다채로운 형태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설 전시 <Treasures of the British Library>를 통해 마그나 카르타 원본, 구텐베르크 성경, 셰익스피어 제1차 희곡집, 제인 오스틴 필사본, 비틀스 자필 가사 등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기도 했는데, 소장 가치가 높은 자료도 증명 없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도서관의 정책적 기조가 전시에도 반영되어 있는 듯했다. 일정 관계로 아쉽게 전시는 관람하지 못했으나, 보유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도서관의 노력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도서관의 기반 시설 역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설계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각층마다 열람 공간을 복도까지 확장해놓은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 각각의 구획마다 테이블의 형태가 모두 다른 것 또한 특별하게 다가왔다. 몰입이 필요한 사람부터 토론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는 듯했다. 건물의 층고가 높고 개방감 또한 커서 공용 공간임에도 오히려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도서관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개별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듯했고, 이용자로 하여금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도서관 측의 깊은 고민 또한 느껴졌다.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도서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역시 뜻깊었다. 네트워킹은 크게 이벤트 기획 파트와 전시 기획 파트로 나뉘어졌는데, 담당자들의 업무 내용과 성과,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그중에서도 내게 크게 와 닿았던 것은 커뮤니티 참여 매니저(Community Engagement Manager)인 자말 모하메드(Jamal Mohamed)의 이야기였다. 그에 따르면 원래 영국국립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은 아니었으며, 8년여 전 이용자 실태 조사 이후 본격적으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집중적이고 꾸준한 노력 덕분에 실제로 인근 1마일 이내에 사는 주민들의 참여가 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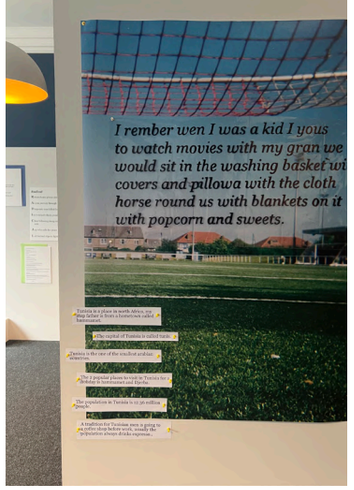
관련 사례로 그가 최근 3년간 진행했다며 소개해준 참여형 프로그램 <Young Creaters Lab> 역시 눈길을 끌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들이 도서관의 소장품을 소재로 소셜 미디어에 어울리는 시각적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이었고, 이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소속감과 애정을 높이는 기획이었다. 보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용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선명했고, 도서관을 전문가와 학자들의 전유물에서 주민들의 역동적인 공간으로 혁신하려는 의지 또한 엿보였다. 상주 작가로 활동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청년층을 도서관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터라, 커뮤니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현재 영국국립도서관의 문제의식과 기획 전략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축제의 도시' 에든버러에서는 북페스티벌(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을 참관했다. 프린지 페스티벌, 국제 페스티벌 등이 동시에 열리는 기간답게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과 예술가들로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분위기였고, 주요 거리마다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북페스티벌은 구시가지 남쪽에 위치한 에든버러 대학의 퓨처스 인스티튜드(Edinburgh Futures Institute)를 주요 거점으로 진행되었는데,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구 왕립 진료소를 현대적으로 개조한 건물이어서 공간 자체가 주는 독특한 위엄이 있었다.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 기능과 아름다움을 융합해 낸 듯했고, 그래서인지 작가와 독자, 그리고 전 세계의 출판 관계자들이 교류하는 지식의 장으로서 더할 나위가 없었다. 건물 외벽에 라틴어 'Patet Omnibus(모두에게 열려 있다)'가 적혀 있다고도 하는데, 평상시에도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생, 연구자, 지역 주민, 관광객 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었다. 우리가 참관하는 동안에도 지역 주민들이 건물 내 마당과 안뜰, 카페를 자유로이 이용했고, 새 학기를 맞아 단체로 견학 나온 아이들 역시 많았다.

북페스티벌 프로그램 가운데서는 <스파크 에디션>(Spark Edition)이라는 전시에 오래 눈을 두었다. 이 전시는 매년 페스티벌에서 선보이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된 아티스트가 지역 청소년의 창작 활동을 돕고 그 결과물을 전시 형태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문학 상주 작가 지원 사업이 연상되었다. 상주 작가가 창작 워크숍을 열어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보다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그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이 유사했다. 이 전시는 청소년들의 개성적이고 기상천외한 시각도 좋았지만 그 시각을 보여주는 방식 또한 특별했는데, 특히 글쓰기, 그림, 설치 미술 등 각 작업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적 변주를 시도한 것이 돋보였다. 전시 전반에 걸쳐 어떻게 해야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 깊이 고심한 흔적이 느껴졌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새로이 구성하고 배치한 것이 각 작품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듯했다. 매 작품을 유심히 살피다 보니 나중에는 거의 모든 작품을 사진에 담게 되었는데, 내게는 내용과 형식 모두 이제껏 접해본 참여형 전시 가운데 발군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매력적이었다.

관람을 마친 이후에는 스코틀랜드의 예술위인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의 문학팀과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문학과 출판 분야를 이끄는 앨런 베트(Alan Bett)와 북페스티벌의 문학 산업 교류 프로그램인 글로벌 잉크(Global Ink)를 담당하는 베스 코크래인(Beth Cochrane), 페스티벌 매니저인 케이트 세일러(Kate Seiler)가 참석했고, 창작자와 단체, 기관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각국의 문학계 전문가들이 국제 교류와 협업을 증진하기 위해 북페스티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도서를 매개로 산업적 활성화와 문화적 세계화를 도모하는 페스티벌의 의의와 목표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글로벌 잉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황석영 소설가의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하루 차이로 일정이 어긋나 직접 관람할 기회를 놓친 점은 아쉬웠으나 일찌감치 매진이 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는 후기를 전해 듣기도 했다. 한국 문학에 대한 스코틀랜드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느껴졌고, 더불어 환상성과 다양성, 지역성을 선호하는 이곳의 문학적 경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문예창작센터(National Centre for Writing)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였다. 우리가 에든버러에서 기차로 여섯 시간 반이나 걸리는 노리치행을 감수한 것은 오직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방문 후에는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리치가 2012년 영국에서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UNESCO City of Literature)로 지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기관답게 글쓰기의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사명감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워크숍,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등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전문성과 체계가 느껴졌다.

문예창작센터가 본부로 사용 중인 드래곤 홀(Dragon Hall)은 노리치의 역사적 자산이자 자랑이었다. 과거 상업용 거래소였다는 이 건물이 무려 15세기에 지어졌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수백 년간 겹겹이 쌓인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지금도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경이로웠다. 물자를 교류하던 곳이 세월이 흘러 이제는 지식을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는 담당자의 설명이 내게 퍽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그래서였다. 노리치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이곳에 집대성되어 있었고, 국제 문학 교류를 주도하는 허브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지향점 역시 시설 곳곳에 어우러져 있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가들을 위한 집필 공간과 거주 공간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드래곤 홀 코티지(Dragon Hall Cottage)라고 불리는 이 시설은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2층짜리 벽돌 주택으로 원래는 양조장 주인이 살던 집이었다고 하는데, 현대식 주방과 욕실은 물론, 이곳에 머물렀던 작가들의 책으로 꾸며진 작은 서재까지 갖춰져 있었다. 침실로 이어지는 좁고 가파른 계단도, 잘 가꾸어진 정원과 강의 일부가 내다보이는 전망도 모두 이색적인 운치가 있었다. 드래곤홀과 코티지를 잇는 작은 중정 역시 창작 활동과 교류 활동 모두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러한 환경적인 이점까지 더해져 이곳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전 세계 작가들로부터 손꼽히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투어 후 이어진 네트워킹 시간에는 문예창작센터의 프로그램 총괄인 홀리 아인리(Holly Ainley), 커뮤니케이션 총괄인 파올라 산체스(Paula Sanchez),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인





댄 스케일스(Dan Scales)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작가, 출판인, 담당 기관 등 문학 관련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네크워크, 그리고 정부 예산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었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공유되었고, 그 과정에서 작가 개인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지역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는 상주 작가 지원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인 모델인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작가와 지역 기반의 문학 시설, 그리고 이용자의 호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는 사실에 문예창작센터 측에서도 놀라움과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2024년 가온도서관에서 기획하고 진행했던 소설 쓰기 워크숍 <일기도 소설이 되나요?>와 그 결과물인 소설집 『거짓말로 쓰는 일기』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지역 주민들이 실제 자신을 주인공으로 허구의 일상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도서관이 자리한 서울시 중구 지역을 글쓰기의 무대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각각의 이야기에 어울리도록 배치된 중구의 15개 동(洞) 사진 역시 호응이 있었다. 이후에 문예창작센터 측으로부터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맥이 닿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A Tapestry of tales』라는 책을 선물 받기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드래곤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소재로 한 이야기 모음집이었다. 참가자들이 12주 동안 드래곤홀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창작을 이어가는 커리큘럼이 흥미로웠고, 시, 팸플릿, 팝업북 등 다양한 형식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 안에 묶는 시도 또한 신선하게 다가왔다. 결과물을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하여 센터를 방문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해놓은 것도 팁이 되었다.



다음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었기 때문일까. 네크워킹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오늘 만남이 일방적인 벤치마킹이 아닌, 서로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창의적인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어와 네트워킹을 이끌어준 담당자들의 따뜻한 환대와 관심 덕분에 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중세 시대 때부터 국제 교류가 이어져왔다는 이 유서 깊은 공간에 우리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어서 기뻤다.

책과 일상, 문학의 문턱을 낮추다

가온도서관 송은정 사서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상주작가님에게 했던 말이 있다. “저희 일등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 갈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김병운 상주작가님은 “선생님, 김칫국 금지예요.”라는 답을 돌려주시곤 했다. 그리고 2025년 4월, 가온도서관이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었다는 결과발표를 보고 연락을 드렸다. “제 말이 맞죠! 짐 쌀 준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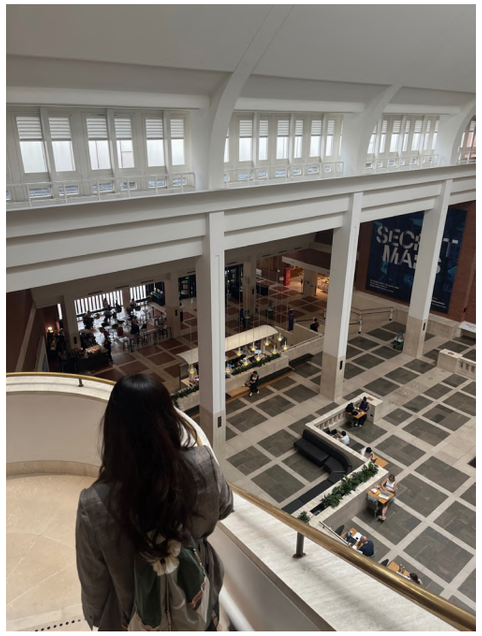
그렇게 도착한 영국에서 마주한 것은 책이 대중 안으로 스며들고, 일상 속에 자리 잡은 광경이었다. 막연히 한국의 작가 생가와 같은 관광지의 형태, 대출·반납 위주의 도서관 형태가 주가 될 거라 예상했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풍경은 전혀 달랐다. 어느 곳 하나 사유화된 곳이 없었다. 누구나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소박하고 편안한 장소들,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참여’의 요소들이 먼저 시선을 끌었다. 영국의 문학 현장은 기념이나 보존, 보관의 장소가 아니라, 접근과 참여의 장소라고 부르는 것이 걸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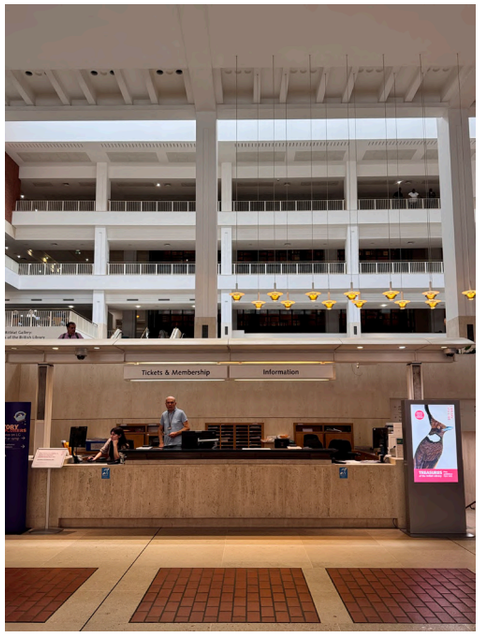
연수 일정 중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았던 것은 영국문화원 문학 담당 관계자와의 미팅 중의 말이었다. “번역이라는 언어적 장벽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문학은 종이와 펜 그리고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든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오케스트라나 공연처럼 큰 장비나 무대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학은 더 보편적이고 확산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영국 국외 연수 일정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도서관 사서로서, 또 문학을 사랑하고 향유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책이 일상에 스며드는지’ 영국의 문학 향유 방식을 나름대로 따라가는데 있어서의 길잡이가 되기도 하였다.

영국 국립도서관 The British Library

영국 국립도서관에서 받은 주요한 인상은 보존과 개방의 공존이었다. 사실 어느 도서관이 이 두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냐마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영국국립도서관의 노력이 더 와닿았던 것도 사실이다. 과거 희귀·고자료 중심의 폐쇄적 운영에서 벗어나 누구나 패스를 발급받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수장고 자료의 신속한 제공(신청하는 모두에게)과 디지털 제공을 병행해 이용의 시공간적 제약을 낮춘 점이 인상 깊었다.

생활권 단위의 원 마일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면서 도서관을 ‘연구자를 위한 장소’에서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돋보였다. 국립 단위의 도서관이 원 마일 커뮤니티를 중점 사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다. 국립도서관이지만 여전히 지역에 존재하는 모두를 위한 개방 공간이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도서관들이 지역 커뮤니티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결국 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하고 널리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위해 18~24세 지역 청년층을 도서관 이용자를 넘어 도서관 콘텐츠 생산자(숏폼, 틱톡 등 디지털 미디어 홍보)로 위치시킨 것도 유효한 전략으로 보였다. 그들의 일상에 자리 잡기 위해서 청년세대가 단순 이용자가 아닌 도서관 콘텐츠의 제작자, 기획자가 되도록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도서관에 애정을 가진 미래 세대가 되도록 이끌었고 도서관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결자가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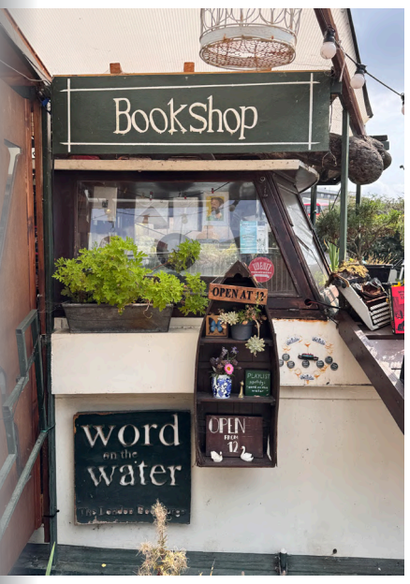




런던의 보트 서점 Word on the Water



물 위에 떠 있는 보트 안의 작은 서점은 런던 관광지의 명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서의 입장에서 100년이 막된 보트 위의 작은 서점은, 거창한 공간 없이도 책이 일상과 맞닿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 전혀 크지 않은, 다섯 명이 들어가면 비좁아지는 이 공간에 끊임없이 방문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그리고 줄을 따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공간과 그 안의 책들을 둘러보는 사람들의 책에 대한 애정을 느끼며 이 서점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보트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빼곡히 들어간 책들은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신간과 중고, 고전과 현대, 아동서







로 구분되어 있다. 서점을 나와 찾아본 바로는 이 작은 공간에서 낭독회(Poetry Slam)를 비롯한 오픈 마이크 공연이 수시로 열린다고 한다. 주변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 없이 닿을 수 있는 형태의 행사들은 결국 문학이 어떻게든 일상에 스며들게 한다. 이러한 생각은 뒤이어 방문한 에든버러에서 더 강해졌다. 중요한 것은 문학이 얼마나 일상과 접점을 가지는가다. 폐쇄적인 형태에서 누군가 꼭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일상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맞닿을 수 있는 형태의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든버러 국제 북 페스티벌

에든버러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어 20주년을 맞은 도시다. Edinburgh City of Literature Trust는 에든버러의 문학창의도시 이후 문학을 실제 도시에 뿌리내리게 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독립 비영리단체로, 문학 프로그램 개발, 국제 교류 허브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트러스트와 함께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다양한 출판·교육 기관이 협력하여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이를 상징하는 축제가 바로 에든버러 국제 북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수백개의 프로그램과 세션이 기획되며, 건물 하나, 장소 하나가 무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대가 되어 축제가 이루어진다. 2025년에는 약 700개의 행사에 641명의 작가가 35개국에서 참여하였다.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에서도 미래 세대와 문학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유·아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3권의 도서를 무료 제공한다는 점이 그러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은 유·무료,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참여자들의 문턱을 조정하고 있었다. 황석영 작가의 세션이 큰 호응을 얻었다는 관계자의 후기를 전해 들으며 다시 한번 문학은 펜과 종이만 있으면 어

디든지 퍼져 나갈 수 있으며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는 공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학도시로서 에든버러의 노력은 국제 북 페스티벌의 유치와 운영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제 북 페스티벌 관계자의 “문학도시의 의미는 타이틀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기회에 있다. 대중이 동참하지 않으면 타이틀은 공허하고 아무 의미없는 것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했다. 이 말들이 오가는 사이 주변은 여러 학교에서 방문한 아이들로 가득해졌다. 누구나 오갈 수 있게, 대중이 동참할 수 있게 기획된 곳에서 끊임없이 뛰어놀며 전시관을 구경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한국의 여러 도서전, 페스티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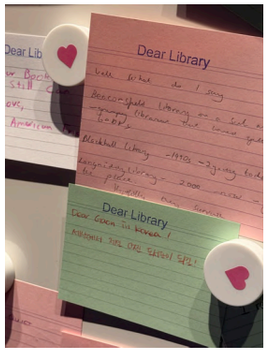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북페스티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인 장치들을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말에서 이들에게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들이 결국 이러한 문학적 수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대상은 일상에 맞닿아 있는 대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기획 특별 전시 Dear. Library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 디어 라이브러리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독서경험을 공공의 서가와 물리적으로 이어주고, 참여를 확장하는 전시이다. 디어 라이브러리 전시는 2025년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의 건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로, 이름 그대로 ‘도서관에 보내는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전시는 참여형 전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용자가 스코클랜드 국립도서관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면서도 중간중간 자신의 도서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눈여겨본 것은 [삶을 바꾼 책], [나를 비추는 책], [중요한 말을 알려준 책], [나를 과거로 데려가는 책], [다시 찾아 읽는 책], [시야를 열어준 책], [다른 곳으로 데려다주는 책] 등의 코너에 자신이 추천하는 책을 적고 실제로 해당 도서를 옆 서가에 모아둔 곳이었다. 서로서로 독서 경험을 공유하고, 개인의 독서경험이 다른 사람의 독서경험을 릴레이로 이끄는 자발적 참여의 공간이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니 놀랍기도 했다. 또 시대별 도서관 회원카드 아카이브, 대중문화 속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분장가능 코스튬 배치)를 전시해둔 곳도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것 같아 사서로서 큰 감동을 느꼈다.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 National Centre for Writing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던 곳은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였다. 관계자들의 따스한 환대도 좋았지만, 상주작가 지원사업 담당자로서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작가와의 상호협력에 대한 더 많은 예시와 롤모델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노리치에서 많은 예시를 얻어갈 수 있었다. 국립문예창작센터의 레지던시 사업은 단순 체류 지원을 넘어 작가 맞춤 지원을 진행 중이었다. 오픈콜을 통해 참여가 확정된 작가와의 니즈 인터뷰를 통해 작가의 필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해당 작가에게 적합한 현장의 자원을 활용, 매칭하기 위해 담당 직원들이 세심하게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예로 2023년에 방문한 극작가의 경우, 다른 지역의 극장과의 연결까지 지원해 활동반경을 넓힐 수 있게 돕고, 작가마다 서로 다른 커미션을 부여해 작가 고유의 역량과 지역 서사를 결합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미팅 중간에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서관과 문학관의 사업 성과물도 공유할 기회가 있었는데, 국립문예창작센터 측에서 한국의 성과물을 보고 놀라워했던 것 역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커뮤니티 챔피언이라는 가칭을 붙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구상 중인데, 지역 내의 23개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작가들을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다보니 한국의 상주작가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국외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도서관 담당 사서로서 주로 생각했던 것은 '상주작가가 함께 함으로써 도서관이 무엇을 더 얻어갈 수 있을까?' 혹은 '상주작가가 어떻게 해야 도서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였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협력과 만족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생각뿐만 아니라, '상주작가가 도서관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를 각 기관에서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주작가가 기관에 상주하면서 어떠한 문학적 지원을 바라고 있는지, 상주작가가 원하는 방식의 이용자와의 소통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작가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운영할 때 서로가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연수는 잘 기획된 작은 일상의 접점이 공공의 참여와 만족을 높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정이었다. 2025년에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로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이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홍보되고 있는지, 참여에 제약이 없는지, 그리고 참여한 이후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이어갈 수 있는지, 상주작가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주작가의 성향과 만족을 고려하였는지를 다방면으로 고민할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언제나 문학이 지역사회의 일상에 조금 더 다가가길 바라지만,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는 모호하다. 어떠한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고, 실천되고 있는지 따져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며 문학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돌아가는 참여자들의 표정과 후기를 보며 오늘도 누군가의 일상은 문학 덕에 풍요로워졌구나, 라고 막연하게 믿는다. 상주작가 지원사업 덕분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



유종의 미

거마도서관 흥흥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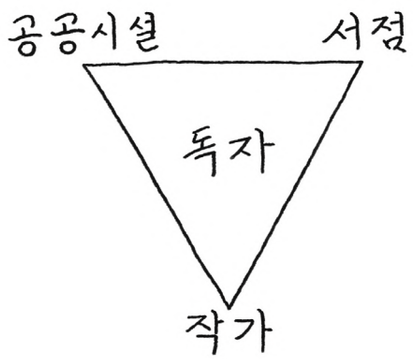
들어가며

3년 동안 상주작가 사업에 참여하며 감사한 일이 많았다. 덕분에 계속해서 상주작가 사업에 참여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상주작가 사업과 개인작업을 언제까지 병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다 2025년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한 작가가 최대 3년까지만 상주작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내 마지막 3년 차의 상주작가 무대였던 거마도서관이 우수시설로 선정되었다.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우수시설로 선정된 것도 모자라 영국 연수의 기회까지 얻었다.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 연수를 통해 상주작가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라는 의미로. 더는 상주작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지만, 지난 3년간 상주작가를 하며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영국 연수로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 연수는 그런 경험이 되었다.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사업'을 떠올리면 그림 하나가 떠오른다. 삼각형 그림이다. 이 삼각형의 세 꼭짓점에는 각각 공공시설, 서점, 작가라고 쓰여 있다(여기서 공공시설은 도서관이나 문학관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중앙에는 독자가 있다. 이 연수 후기는 일정 순서와 상관없이 내내 이 삼각형을 떠올리며 썼다.







공공시설

상주작가로 여러 해 근무하면서 점점 더 모집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프로그램만 기획했다. 상주작가 사업은 참가자들이 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더 많은 혜택이 지역에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영국국립도서관에서 만난 Community Engagement Manager인 Jamal Mohamed를 만나면서 깨졌다. 지역주민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는 18~24세 청년층이 도서관에 더 자주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관해서 물으니, 그 전까지 도서관의 주 방문층은 지식인, 학자 등이었기 때문에 도서관 방문 및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18~24세는 수험생이면서 취업 준비생이다. 이 연령층은 책보다 학업이나 자격증에 집중하다 보니, 문학 독서율이나 문학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고백건대 상주작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개설해봤자 신청자가 없을 거란 생각에서였다. 그렇지만 과연 그랬을까. 그리고 그게 과연 중요한 문제였을까. 신청자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신청자가 서너 명뿐이라고 하더라도 18~24

세의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성과는 단순히 보고서 한 줄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인원수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상주작가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수에 제한이 사라지거나 프로그램 참가 인원수가 적은 프로그램도 많은 프로그램과 똑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상주작가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문학으로 한정했던 것에도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이는 스코티시 스토리텔링센터의 방문을 통해서였다. 이곳은 구전문학을 전하는 곳임에도 특정 나이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이뤄져 있었다. 음식이나 음료를 파는 공간도 있었고, 공연과 전시를 위한 공간도 있었다. 이렇게 복합적인 공간이다 보니 정적인 공간이 아닌 동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는 센터가 여러 사람의 교류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서이기도 했다. 특히, 공연, 음악, 무용 등 다른 여러 장르와 협업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상주작가 프로그램으로 성우를 초빙하여 아이들과 함께 낭독극을 한 적이 있다. 문학은 아니지만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더 입체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공연가나 음악가, 무용가를 초빙할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아직도 상주작가 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인다.



에든버러 문학창의도시

한국의 문학창의도시는 두 곳이다. 원주와 부천. 두 곳 모두 개인적인 일로 방문한 적이 있을 뿐 문학창의도시로서 방문한 적은 없었다. 그런 내가 세계에서 첫 번째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된 에든버러에 방문할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 에든버러뿐만 아니라 노리치 또한 문학창의도시였는데 이번 연수 일정에서 문학창의도시를 두 곳이나 방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에든버러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재단 대표인 Dr. Harriet MacMillan을 만났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에든버러는 2024년인 작년, 문학창의도시로서 20주년을 맞았지만 당시 담당자의 질병 부재로 이렇다 할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에든버러가 문학도시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자신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그런 그의 말은 한국의 문학창의도시인 원주와 부천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는 에든버러에 Literature House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문학창의도시임에도 그걸 상징하는 공간이 따로 없어서 공간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고. 원주와 부천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원주와 부천이 한국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인 것은 영국 연수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 작가라는 직업은 차치하더라도 나름 문학과 관련된 곳을 찾아다니는 편인데도 그랬다. 이런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할까. Harriet의 말로는 에든버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따라서 대중들에게 에든버러를 문학창의도시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트램에 시를 전시하거나 책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에도 시가 전시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되었지만, 책 자판기는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했다. Harriet에게 물으니, 펭귄 출판사의 대표가 엑시터라는 영국의 도시와의 협업을 통해 책 자판기를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이게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책 판매로 생긴 수익금이 출판사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프로젝트에 쓰이거나 작가를 지원하는 등의 투자 방식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런 유통, 투자 모델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KTX 역에서 책을 팔거나 KTX 열차 안에서 책을 판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텐데. 기억을 거슬러보면 한국의 지하철에도 책 자판기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단행본이 아니라 혈액형이나 별자리 등 일시적인 소비에 그치는 소책자 판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한국의 지하철 책 자판기는 자취를 감추었다.

지하철 책 자판기에서 책을 사는 것과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Harriet은 지하철 책 자판기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이 될 수 있고, 독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출판사에는 새로운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고 했다. 또한 독자는 이 경험을 사진으로 공유할 수도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에는 실망스러웠다. 이런 이벤트는 한국에서도 흔한 것이었으니까. 한국의 도서전에 가면 시 자판기부터 시작해 책 처방전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놓친 게 있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금 Harriet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의 인지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한국의 문학창의도시뿐만 아니라 문학관까지도 맞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곳이다. 작가가 상주하는 공간이 궁금하기도 했고, 다양한 작가들이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한 곳이기도 해서다.

Head of Programmes & Creative Engagement인 Holly Ainley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립문예창작센터에 머물렀던 작가 중에는 한국 작가도 많았다. 2023년에 상주했던 이연주 극작가는 극장과 관련하여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 이에 국립문예창작센터는 노리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극작가를 만나는 것까지 도움을 주었다. 결과물에 있어서 신정근 사진작가에게는 노리치에서의 영감을 작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연수차 방문한 공간에 한국 작가들이 상주해 있었다는 사실은 묘한 설렘이 되었다. 아마도 그건 내가 그 공간에 상주한다면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할지 상상해 보는 시간 덕분일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 레지던시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나에게도 작은 씨앗 하나가 내려앉은 것 같았다.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는 Writers Hub라는 온라인 자료집을 가지고 있어서 작가들이 국립문예창작센터에서 머문 시간을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트 등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사실 상주작가도 상주작가의 경험을 글로 쓴다. 하지만 이 글은 모든 상주작가 활동이 끝나고 쓰는 후기에 그친다. 국립문예창작센터의 Writers Hub로 인해 작가가 얼마나 압박감을 느낄지는 상상이 안 가지만 센터로서는 분명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후기만으로는 상주작가의 모든 일상을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

국립문예창작센터와 작가의 협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상주작가 사업의 지향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국립문예창작센터에서는 작가가 본인의 주도하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





록 했다. 이 과정에서 편안한 분위기의 소셜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작가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발표하면 참가자들이 누구를 만나보라고 추천하거나 제안한다고 했다. 내가 상주작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가의 자율성과 연결이 되었다.

그렇다고 국립문예창작센터가 작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물러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작가의 기존 작업물을 통해 작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작가와의 상의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참여 작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센터라는 점은 상주작가 사업에서 담당자와 시설의 역할을 짚어주는 것처럼 보였다.

서점

앞서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사업'을 생각하면 떠오른다고 했던 삼각형의 꼭짓점 중 하나는 서점이다. 한국인에게도 영국 서점은 유명하다. 다만, 에코백으로. Daunt Books와 London Review Bookshop이 그 주인공이다. 물론 이건 여행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정말 많은 서점을 방문했다. 이는 영국에 이만큼이나 많은 서점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Waterstones부터 시작해 Foyles, The Book Hive, Hatchards, Word on the Water, 그리고 Daunt Books까지. 여기에 Cecil Court에서 우연히 방문한, 신비로운 서점인 Watkins Books까지 더하면 일곱 군데나 된다. Waterstones와 Foyles는 대형 체인 서점으로, 이 중 Waterstones는 런던 시가지를 걸어갈 때마다 만날 수 있었다.



Waterstones나 Foyles와 같은 대형 서점의 방문으로 현재 영국 내에서 한국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강 작가의 책을 비롯해 박상영, 손원평, 김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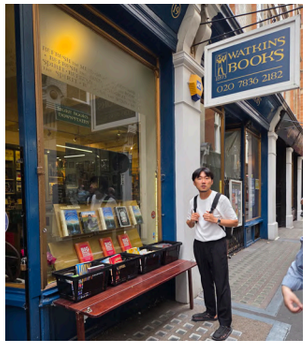


작가의 책을 매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반가웠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문학 작품과 더불어 다양한 한국어 교재도 함께 진열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영문으로 된 한국문학을 소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를 구매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은 서점을 통해서는 상주작가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The Book Hive는 독특한 큐레이션이 있는 서점이다. 일반적인 진열 방식을 따르지 않은 서점 직원의 큐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곳이다. 들어보니 이곳에서는 'Mannington Book Bash'라고 하는 연례 문학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았다. 이는 여러 작가가 참여하여 독자들과 소통하고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설명을 들으니 상주작가 사업의 '문학상주작가 스테이지'가 자연스레 떠올랐다.







또 다른 서점으로는 Watkins Books로, 타로, 오컬트, 미스터리 등을 다루는 서점이었다. 좁은 공간은 책과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북적이는 공간의 한쪽 구석에 타로 카드를 유료로 봐주는 공간이 있었다. 책과 함께 불상이나 타로카드를 팔면서 타로카드까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비록 작지만 복합문화공간으로 보였다. 서점의 크기는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

한류라는 말은 K-컬처로 바뀌면서 다양한 문화 산업으로 확대됐다. 한국의 문학, 영화, 노래, 뮤지컬 등등 세계 곳곳에서 K-컬처와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그 모든 결과물의 시작점엔 창작자가 있다. 공공시설, 서점을 이어 삼각형의 마지막 꼭짓점은 작가, 즉 창작자다. 창작자는 작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생산된 작품을 독자들은 서점이나 공공시설에서 소비한다. 따라서 창작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문화 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건강한 창작자는 건강한 지원으로 만들어진다.

이번 영국 연수를 통해 창작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그 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란 생각이 들었다. 영국에서 예술을 업으로 삼는 창작자들도 투잡, 쓰리잡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도서관의 정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부는 공공시설과 창작자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 그래서 영국 예술 산업의 미래는 밝은가?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영국에 가서 엉뚱하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한국에는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사업'이 있다. 이는 '작가가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창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업이다. 작가를 그만두려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상주작가 사업을 발판 삼아 작품을 다시 쓸 수 있었던 작가도 있을 것이다. 그 작가는 훗날 조앤 K. 롤링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작가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의 조앤 K. 롤링도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로부터 문학 기금을 지원받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후속작인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을 쓸 수 있었다. 그의 문학적 가치와 잠재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해리포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20세기의 영국문학도 지금처럼 빛나지 않았을 것이다.

영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상주작가 사업이 끝난 게 실감나지 않았다. 지금 영국 연수 후기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실감이 된다. 아쉬운 마음은 들지 않는다. 상주작가 사업에 더는 참여할 수 없지만, 상주작가를 하며 얻은 안정과 신뢰만으로도 앞으로의 창작 활동에 원동력이 생겼다.

이제 나는 다시 전업 창작자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길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다. 상주작가 사업으로 쌓은 경험은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고, 그 가능성은 사업이 끝난 지금부터 더 크게 빛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독자와 만나는 다양한 통로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문학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쉴 수 있을지 실험할 것이다. 상주작가 사업이 내게 안정과 신뢰를 선물했다면, 이제는 그 토대를 바탕으로 더욱 앞으로 나아갈 차례다. 영국 연수에서 본 다양한 문학 실험과 창작자 지원 방식은 언젠가 한국에서도 새로운 제도로, 또 다른 창작자의 발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 개인의 한 걸음이 아니라 문학 공동체의 도약. 나는 그 미래를 향해 계속 쓰고, 계속 나아갈 것이다.

거마북이의 모험 : 거마북이, 영국에 가다

거마도서관 김미경 대리

모험을 시작하며



안녕! 나는 거마도서관을 지키는 마스코트 '거마북이'야. 거마도서관이 2024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덕분에, 담당자님을 따라 꿈에 그리던 영국에 다녀오게 되었어. 2012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 특히 잠자리에 든 아이들에게 「피터팬」을 읽어주는 조앤 롤링과, 아이들이 동화 속 악당들로 인해 악몽을 꾸자 하늘에서 우산을 들고 날아와 물리쳐 주는 메리 포핀스로 이어지는 연출이 인상 깊었지. 영국문학과 문화가 가진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 같았어. 그런 영국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다니! 올해로 스무 살이지만 도서관에서 책만 읽다 보니 해외에 가보는 건 처음이라 가슴이 두근거렸어. '거마북이의 모험: 거마북이, 영국에 가다'!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를 들려줄게.

첫 번째 모험. 거마북이, 날다

14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어. 비행은 처음이었지만 씩씩하게 잘 해냈지.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껴본 거북이는 아마 몇 안 될걸! 킹스크로스역 앞 숙소에 짐을 풀고, 먼저 도착한 분들과 만나 드디어 이번 연수 완전체가 될 수 있었어.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내일부터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 모두 피곤했지만 설렘 가득한 눈빛이었지. 특히 흥흥 작가님을 만나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흥흥 작가님은 2024년에 거마도서관 상주작가로 활동하며 우리 도서관만의 특색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해 주셨지. 나 '거마북이'를 만들어 주신 것도 바로 작가님이셔. 작가님의 재치와 열정은 도서관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어. 지금 돌이켜봐도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반짝거렸지. 물론 그 때는 우리가 8월의 어느 날 저녁, 런던에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야.

두 번째 모험. 지식의 바다로의 항해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니 어린이 채널에서 페파피그와 패딩턴이 나왔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친구들이지. 우리 도서관에서도 자주 보이는 책의 주인공들이라 알고는 있었지만, 런던에서 이렇게 보니 새삼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영국국립도서관이었어. 영국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원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북, 셰익스피어 자필본 등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희귀한 자료들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지. 지식의 바다를 항해한다는 의미로 거대한 배를 형상화했다는 건물 입구에 들어서니 오픈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 평소에도 얼마나 사랑받는 공간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 도서관의 위치와 접근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 살다보면 역세권, 학세권만큼이나 '도세권'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







도서관에 들어가려면 먼저 보안요원들의 가방 검사를 통과해야 했어. 열람실은 모두 출입증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했고 출입증이 없어도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은 역시 빠르게 자리가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 중앙의 KING'S LIBRARY 주변 좌석은 특히 인기였지.
도서관 입구에는 영국국립도서관과 영국의 문학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는 샵이 있었어. 단순히 기념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의 정신을 담은 예쁘고 실용적인 물건들이 가득했지. 마침 나랑 닮은 거북이 친구 굿즈도 있어서 반가웠지 뭐야. 굿즈를 잘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수익 창출을 넘어 도서관의 가치를 알리고 홍보하는 멋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도서관에도 이런 멋진 굿즈샵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봤지. 어쩐지 나와 닮은 거북이 친구 캐릭터도 있어서 함께 사진도 찍어봤어. 'MY LIBRARY IS WHEREVER I GO' 정말 멋진 문장인 것 같아.

관내 회의실에서 영국국립도서관 관계자들과 미팅을 진행했어. 영국도서관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Living Knowledge'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자가 아니어도 원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 방대한 자료 중 3분의 1은 이곳에, 나머지는 요크셔에 위치한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지만 일일 셔틀을 통해 본관으로 자료를 운송하고 디지털 접근도 가능하다고 했어.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족,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연령

층 및 소외 계층의 포용에도 힘쓰고 있었어.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창작 프로그램 등을 통해 18~24세 젊은 연령층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해.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전시와 이벤트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는데, 핵심은 도서관의 소장품을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어. 전시에는 5개월 동안 평균 3~6만명의 관객들이 찾아오고 해리포터, 아가사 크리스티 관련 전시가 인기 있었다고 해. 전시에 따라서는 파트너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빌리기도 하는데, 그 예로 아가사 크리스티 관련 전시는 프랑스와 협력해서 작가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빌려 왔다고 했어. 기획 전시는 보통 유료로 진행되며 토크나 이벤트, 공연 등도 함께 진행된다고 해. 이런 전시들은 보통 6년을 내다보고 계획한다는 것이 놀랍고도 부러웠어. 공공도서관에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하기에는 예산과 인력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지.

아시아·아프리카 자료 담당자들과의 미팅에서는 영국국립도서관이 소장 중인 아시아 자료들을 소개받았어. 동아시아의 방대한 고문헌 및 현대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인쇄본뿐 아니라 학술지, 신문, 시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라고 해. 「기사진표리진찬의궤」, 「삼강행실도」와 겸재 정선의 화첩도 볼 수 있었지. 번역본이 아닌 한국어로 된 작품을 수집하려 하고 있으며, 한국의 인쇄술이 구텐베르크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전시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이 놀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미팅을 마치며 작년 상주작가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그림책'의 결과물인 「거마북이의 모험」을 전해드리고 왔어. 거마도서관에서 16주 동안 어린이들이 쓴 이야기에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셔서 완성한 책이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나, 거마북이가 주인공인 책이야. 이 책을 함께 만든 우리 어린이 작가님들이 「거마북이의 모험」이 멀리 영국까지 날아와 영국국립도서관 사서들의 손에 놓였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고 또 기뻐할까? 담당자님과 흥흥 작가님도 정말 뿌듯해하셨어.

리젠트 운하를 따라 걸으며 'word on the water'에도 방문했어. 운하 위에 정박 중인 보트 서점이라니! 책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매력적인 공간이었지, 나무 갑판 위를 걸을 때면 살짝 흔들리는 이 서점은, 작지만 아늑한 누군가의 서재 같은 공간이었어. 책 판매뿐만 아니라 라이브 음악회, 시낭독, 글쓰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

우리는 에든버러로 이동하기 위해 킹스크로스역으로 갔어. 그 유명한 해리포터의 9와 3/4 승강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 대기 줄이 너무 길어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지만 새삼 내가 런던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에든버러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

세 번째 모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에든버러

에든버러에서의 아침이 밝았어. 에든버러는 런던과는 다르게 꽤 서늘해서 경량 패딩을 걸쳐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였지. 에든버러는 연수에 참가하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했던 도시야.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이자 조앤 롤링이 이곳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했고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도 에든버러 출신이라는 사실!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는 매년 8월 한 달 동안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축제야.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어 연극, 코미디, 댄스, 뮤지컬, 서커스, 오페라 등 어떤 종류의 예술이든 길거리에서도 수천 개의 공연이 열리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공연을 홍보하고 길거리에서 공연을 펼쳐 보이는 이들과 이를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어. 원래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한 단체들이 모여 주변에서 소규모 공연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페스티벌이 되었다니 놀라웠지. 프린지에 참가하는 비용은 오롯이 본인의 부담이라는데 꿈을 좇아서 이 곳에 온 예술가들과 그들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이들을 보고 있자니 절로 그 열정과 에너지에 물드는 기분이었어.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 현장에 도착하니 이른 오전부터 견학을 온 어린이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 축제 관계자들은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눠주고 작가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어. 이를 위해 기업체나 기관의 후원 등 다양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따른다고.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은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북 페스티벌이고 세계의 작가들을 초청하지만 스코틀랜드 지역 참여율이 40%로 지역 기반의 축제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 올해 한국에서는 황석영 작가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티켓이 매진되는 등 열기가 대단했다는 후기도 전해 들었어. 한국에서도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북 페스티벌이나 야외도서관 등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 우리가 방문한 시간에는 다양한 이벤트나 행사가 있지는 않았지만 16일







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관계자들의 이야기에서 일회성 체험이나 이벤트보다는 어떤 작가를 초청할지와 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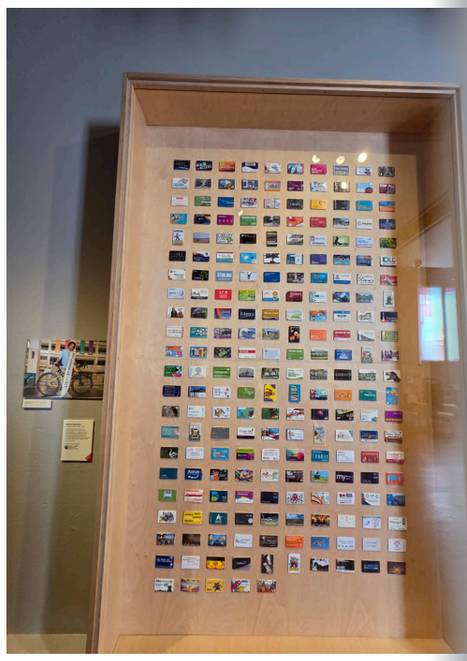
다시 북적이는 로열 마일을 걸어 스코틀랜드 스토리텔링센터에 방문했어. 이 곳은 구전 이야기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의 공간이며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 실제로 카페와 서점, 전시 공간이 결합 된 자유로운 공간이었지. 지하의 극장은 백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구전 문학과 무용, 연극 등 다른 형태의 예술과 함께 협업해서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해. 매해 10월에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여는데 이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작품이 다음해 프린지 페스티벌 기간에 공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가 이 날 관람한 공연 'A Wolf Shall Devour the Sun'도 작년의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수상작으로 이야기와 음악, 그림자극이 결합 된 형태였지. '이야기는 눈에서 눈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말처럼 이야기를 보존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서 이어가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도서관에서 낭독극이나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책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추구하는 바는 같을 거야. 이 날 소극장을 꽉 채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문화를 연결하고 세대를 잇는 힘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었지.

다음으로 개관 100주년을 맞이한 스코틀랜드 최대의 도서관,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에 방문했어.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들에 대해 보여주는 'Treasures of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와 개관 100주년 기념 전시 'Dear Library'를 통해 책과 도서관, 사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어. 독자, 도서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기획했다는 이 전시는 우리의 삶에서 책과 도서관이 가지는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었지. 특히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당신의 세상을 확장하고 생각을 확장하겠다.'는 사서의 약속이 기억에 남아. 작가인 Joseph Coelho가 213개의 도서관을 방문하며 독서를 장려하고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도록 독려한 'Library Marathon' 미션에 대한 소개도 보았어. 작가가 방문했던 도서관에서 수집한 도서관 카드들을 전시한 것이 재미있었어. 마지막에 도서관에 편지를 쓰는 코너가 있어서 담당자님과 나도 거마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담아 편지를 쓰고 왔지. 'Dear Library'를 통해 책과 사서, 도서관과 연결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 정말 '도서관에 보내는 러브레터' 같은 전시였어.









예정에는 없었지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에든버러 중앙도서관에 방문했어. 스코틀랜드 출신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던 카네기는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 재산의 90%를 교육과 문화를 위해 기부했고 전 세계에 2,509개의 도서관을 지었어. 이곳 역시 철강왕 카네기의 기부를 통해 1890년에 개관한 공공도서관이야. 에든버러 중앙도서관 정문에도 카네기 도서관의 모토, '빛이 있으라(LET THERE BE LIGHT)'가 새겨져 있었지. 국립도서관과는 달리 자료실에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어서 도서관을 잠시 둘러보았어. 그 중 Central lending library는 여전히 책 뒤에 꽂힌 도서대출카드를 이용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어. 자료 분류 또한 일반적인 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책등에 판타지, SF소설, 호러 등 장르별 이미지 분류 라벨을 붙여 시각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이색적이었지. 복잡한 분류 대신 직관적으로 장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았어. 잠시였지만 조금 더 일상과 닿아있는 지역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지.

네 번째 모험. 책에 진심인 사람들

오늘 아침은 에든버러 유네스코 문학도시 트러스트의 관계자와의 미팅으로 시작되었어. 에든버러 유네스코 문학도시 트러스트는 문학 네크워크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문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비영리기관이야.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인 에든버러는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했고, 문학창의도시들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 트램에 시를 전시하고 기차역이나 보도에 작가의 말과 문구를 붙이는 등 문학을 일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영국 내 또 다른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인 엑시터는 출판사와 협력하여 책 자판기를 설치하고 스코틀랜드 시인이 럭비 경기 시작 전 쓴 시를 발표하는 이벤트 등을 하고 있다고 해. 에든버러에서도 문학창의도시에 대해 어떻게 더 홍보하고 다른 도시들과 협력하며 교류해 나갈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했어. 신진작가를 위해 도서관에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품이나 영향을 미친 작품을 읽어주는 활동을 통해 이력에 넣을 수 있는 경력을 만들어 주고, 프로필 사진 준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도 흥미로웠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의적인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한 말이 기억에 남아. 지속적으로 문학창의도시에 대해 알리고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한국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인 부천과 원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꼭 방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지.

테사 랜스퍼드 시인에 의해 설립된 스코틀랜드 시 도서관은 오롯이 시를 위한 도서관이었어. 아담하지만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부드러운 공간이었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류정리함에 모아둔 크고 작은 시집들이었어. 정식 출간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가제본 타입의 책들을 포함해서 많은 양의 시집들이 따로 분류되어 있었어. 영화 상영회 및 토크, 공개 시 낭독회, 글쓰기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도 홍보 중이었는데 지금은 고요한 이 도서관에 시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지.

도서관에서 나와 골목 안쪽에 있는 에든버러 작가 박물관을 찾아갔어. 17세기에 지어진 건물을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박물관은 아담하지만 고풍스러웠어.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세 명의 작가들 - 월터 스콧, 로버트 번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삶과 작품에 대해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었지. 자필 원고, 편지, 유품, 초판본, 심지어 신문에 실렸던 부고장까지 있어 작가들이 바로 이곳에 존재했다는 것을 실감 나게 했어. 에든버러에 처음 오고부터 눈길을 사로잡던 스콧 기념탑. 하늘로 높이 치솟은 거대한 고딕 양식의 탑이 한 작가를 기리기 위한 탑이라는 것이 놀라웠는데, 오늘 작가박물관에서 지역의 작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괜히 첫 번째 문학창의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



모든 일정 속에서 에든버러는 책과 작가를 소중히 여기는 도시라는 것을 느꼈어. 단순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려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음이 느껴졌지. 아쉽지만 에든버러를 뒤로 하고 노리치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기차에 올랐어.

다섯 번째 모험. 글과 마음을 교류하는 곳, 노리치

거리에 어둠이 내릴 때쯤 도착한 노리치는 런던이나 에든버러와는 달리 한적하고 조용한 인상을 주는 도시였지. 이번 연수의 중요한 방문지 중 하나인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의 드래곤 홀은 140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원래는 부유한 상인이 무역의 장소로 쓰던 곳이었다고 해. 지붕 장식에 용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드래곤 홀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향신료나 물고기 등을 교류하던 장소에서 이제는 글과 마음을 교류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는 설명이 마음에 들어왔어. 지금은 문학 관련 워크숍, 강연, 축제, 교육 프로그램, 가족 창작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문학 창작과 교육,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





사전예약을 통해 작가들에게 무료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작가들을 위한 실용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작가가 이곳에 머물며 작업할 수 있는 레지던시 사업은 공모를 통해 작가를 선정해. 머무는 동안 개인 작업은 물론 다른 작가들과 교류하거나 행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지. 작가가 선정되면 빠르게 접촉해서 작가의 관심사, 하고 싶은 일 등에 대해 소통하고 최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려 노력한다고 해. 그 예로 2023년 이연주 극작가의 경우 극장과의 교류를 원하여 노리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극장 관계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온라인 공간 'writing hub'를 통해 관련 기사나 작가 인터뷰, 팟캐스트, 영상 콘텐츠 등 작가들에게 영감과 실용적인 자원

을 제공하고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에서 머문 작가들의 콘텐츠도 공유하고 있어. 레지던시를 준비하는 작가들이나 작가 지망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의 상주작가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했어. 거마도서관의 '우리가 만드는 그림책', '놀자! 그림책 캠핑'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거마북이의 모험」 책도 전달했지. 노리치의 도서관과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지만 역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어디에나 예산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에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의 직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일행을 환대하고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 해외에서의 작업 경험을 가지고 싶은 작가 분들에게 이곳을 추천하고 싶어.

센터에서 나와 걸으며 Waterstones 서점에 잠시 들렀어. 도시를 이동하면서 가장 많이 본 서점으로 한국의 대형서점들처럼 잘 정돈된 책들과 다양한 문구류 등을 갖추고 있었어. 시간이 허락한다면 느긋하게 책을 고르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 마켓을 지나 노리치 중심부에 위치한 노퍽 앤 노리치 밀레니엄 도서관에 도착했어. 높은 천장과 전면 창을 통한 채광이 아름다운 현대적 건물이지만, 창밖으로는 노리치의 예스러운 모습이 어우러져 도시의 분위기를 잘 담아내고 있었지. 도서관은 북적였고 특히 어린이 도서관은 책을 탐색 중인 아기들로 가득했어. 1층의 카페는 도서관과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는데, 약간의 소음은 있었지만 불편하기보다 자연스러워 보였지. 사업 창업과 관련된 정보나 특허,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및 교육도 제공하고 있었어. 관내에 미국 도서관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노퍽과 서퍽 지역에서 복무했던 미국 제2항공사단을 기념하여 설립하였다고 해. 지역의 역사를 잊지 않고 도서관에서 기록, 보존하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했어. 자료실에는 성소수자와 성정체성에 대한 도서들을 포함한 LGBTQ+ 코너가 있었어. 이번 연수에서 영국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



다음으로는 14세기에 설립되었다는 역사적인 장소, 노리치 대성당 도서관에 방문했어. 도서관 투어를 통해 도서관 내부 서고를 살펴보고 소장 중인 고서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지. 신학, 문학, 지역 역사와 여행 등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고문서는 물론 현대 신학자료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고 해. 종교 시설의 도서관 방문은 처음이었는데 지역의 종교적, 학술적 역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유서 깊은 도서관에 대해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 근처에서 특색 있는 큐레이션과 아늑하면서도 재미있는 인테리어 요소가 돋보였던 독립서점, The Book Hive를 둘러보고 우리는 다시 런던으로 향했어.





여섯 번째 모험. 사라지지 않는 책의 힘 - 런던이 지켜온 이야기들

다시 돌아온 런던! 런던아이와 빅벤을 바라보며 템즈강을 건너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버킹엄궁을 따라 걸었어. 영국에 오기 전 날씨를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오늘도 파란 하늘과 적당히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었지. 오늘은 영국의 서점들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로 했어. Foyles는 영국의 대표적인 대형 서점으로 방대한 분야를 아우르는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이야. 가장 현대적인 서점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한국 문학 작품과 한국어 서적 코너가 크게 자리잡고 있어서 반가웠어. 번화가 피커딜리 거리에 위치한 Hatchards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 1797년에 문을 열었다고 해. 영국 왕실에 책을 납품하는 왕실 지정 서점이어서 여왕의 초상화를 볼 수 있었지. 희귀본을 따로 보관 중인 책장도 있었는데, 직원에게 요청하면 살펴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었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지. 1912년에 문을 연 여행 전문 서점 Daunt Books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뽑힌 곳이기도 해. 이 서점의 특별한 점은 책을 국가별로 진열하고 큐레이션 한다는 거야. 모든 서점들에는 공통적으로 런던에 대한 그림책부터 여행 서적 등을 모아둔 코너가 따로 있었어. 그리고 서점마다 고유한 에코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지.실제로 현



지에서도 많은 이들이 다양한 서점의 에코백을 메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서점들이 여전히 건재하며, 어느 곳이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는 점이야. 온라인으로 쉽게 책을 살 수 있는 시대인데도 직접 서점에 와서 책을 고르고, 읽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단순히 사진을 찍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원하는 책을 찾는 진지한 모습들이었지. 서점마다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고, 그래서 그 서점을 찾는 이들이 있기에 작은 서점부터 큰 서점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 영국의 책 사랑은 단순히 흘러간 문화나 잠시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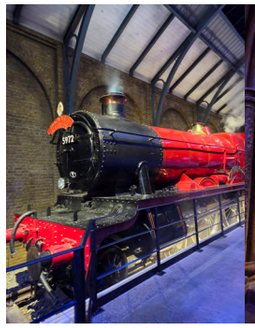



베이커 스트리트 221B, 셜록 홈즈가 살았던 바로 그 하숙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셜록 홈즈 박물관은 기대했던 일정 중 하나였어.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작품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지. 홈즈의 파이프, 바이올린, 책상 위에 놓인 실험 도구들과 벽에 있는 총탄 자국 등... 마치 홈즈의 집에 찾아온 의뢰인이 된 것 같았고, 금방이라도 홈즈와 왓슨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눌 것만 같았어. 작은 공간이었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온 셜록 홈즈의 팬들을 보며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오랜 문학 콘텐츠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지.

일곱 번째 모험. 책장을 넘어 펼쳐진 마법의 세계

영국에서의 마지막 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쉬웠지만 해리포터 스튜디오에 방문하는 날이기에 기대감도 컸어. 담당자님은 동네의 작은 서점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처음 집어 들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해. 유행하던 연예 잡지를 포기하고 아껴둔 용돈으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권을 구입해 단숨에 읽고서 “아, 이건 정말 내가 보고 싶었던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다고. 비록 호그와트에 가진 못했지만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 삼총사의 모험을 마음으로 함께 하며 어른이 되었다고 말이야.

해리포터 스튜디오는 정말 영화 속 해리포터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어. 그리핀도르 기숙사, 덤블도어 교수의 집무실, 그린고트 은행, 더즐리 하우스와 나이트 버스, 다이애건 앨리 등 영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었지. 의상부터 각종 모형, 소품들이 너무나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신기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놀랍기도 했어. 해리포터의 마법 세계를 생생히 구현한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책에서 시작된 세계관이 영화, 관광, 문화산업으로 확장되는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었어.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좇아 영국에 방문하고 있지.






지금의 나는 서울 송파구의 조그만 거마북이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의 콘텐츠로 키워 나간다면 나 역시 잊히지 않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나와 이야기를 만들며 자란 친구들과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테고, 그 친구들은 거마북이를 통해 도서관을 추억할 수 있겠지.

모험을 마치며..

흥흥 작가님은 「거마북이의 모험」 후기에서 ‘거마북이의 모험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마도서관에서 거마북이의 모험은 계속될 거예요.’ 라고 쓰셨어. 어쩌면 그 말이 우리를 영국으로 데려다 준 ‘포트키’[1]였던 것 같아. 작가님과는 아쉬운 이별을 했지만 올해에도 거마도서관의 문학 상주작가 사업은 계속되고 있어. 상주작가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작가가 도서관에 7~8개월을 머무르며 담당자와 함께 기관의 성격이나 이용자 특성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짜임새를 고려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각 기관마다 얼마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야. 작가와의 일대일 북토크, 어린이와 엄마들을 위한 창작 프로그램, 여름방학 그림책 특집 등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주작가 사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어. 어쩌면 우리는 미래의 작가를, 좋은 독자를, 도서관의 수호자를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작가님들과 사업 담당자들이 모여 한 해의 사업을 돌아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며 연대할 수 있었던 이번 연수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고 새로운 힘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영국에서 보고 느낀 책과 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더 많은 사람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서관을 또 하나의 기지로 삼아 꿈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야. 나, 거마북이도 열심히 도울게!

거마북이는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거마도서관 상주작가 흥흥 작가님과의 거마X흥흥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거마도서관과 함께 올해 스무살이 된 도서관의 오랜 친구입니다.

1 해리 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법 기물로 이 기물에 닿는 사람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킨다.

결국은 문학이었다

노작홍사용문학관 정란희 작가

노작홍사용문학관의 상주작가로서 가게 된 영국 연수는 나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만들었다. 공항에서 일행들의 반짝이는 미소가 나를 맞아주었을 때부터 이 연수가 이상하고 진기한 체험이 될 거라는 예감이 번쩍이긴 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토끼를 따라간 앨리스처럼, 나는 그렇게 영국으로 가는 토끼굴로 뛰어들었다. 토끼굴은 작고 좁으면서도 끝이 없었다. 작은 공간에 끝없이 갇혀 있었지만 동시에 이동하고 있었고, 14시간이 지나 낯설고 기이한 '영국'이라는 이상한 나라에 굴러떨어졌다.

영국은 나에게 해리포터의 나라이기 이전에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였다. 전 세계인이 지켜본 올림픽 개막식을 자국의 문화 콘텐츠로 가득 채워 문화 강국의 자부심을 뿜어냈던 나라, 최근에는 브렉시트와 경제불황이라는 말로 더 많이 회자 되는 나라, 그러면서도 문학 선진국을 생각하면 여전히 1, 2위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나라, 그것이 내가 영국에 대해 가진 단편적인 인식의 대부분이었다.

영국 연수에서 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영국작가 루이스 캐럴의 동화, 1865년)가 직면한 놀라움과 진기함을 보고, 듣고, 체험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낯섦'이었고, 이전에는 본 적 없던 '놀라움'이었고, 듣지 못한 '새로움'이기도 했다. 직접 보고 체험한 문화는 새로웠고 많은 영감과 배울거리, 생각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의 '놀라움'은 토끼굴 속 나라의 진기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앨리스 자신의 이상한 변화-쪼그라들고, 커지고, 목이 길어지고, 당돌해지고- 때문이었을까? 앨리스의 영국 연수는 앨리스가 체험한 문화 강국 영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국에 도착한 앨리스가 그 나라에서 겪은 진기한 변신 이야기이기도 하다.

1.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

세계 최초의 문학 도시인 에든버러는 옛 스코틀랜드왕국의 수도답게 문화와 정치, 관광의 중심지였다. 특히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 『아이반호』를 쓴 월터 스콧 등 많은 작가를 배출한 도시로 유명하다.

우리가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에 도착한 날은 8월 19일, 비가 오리라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이 눈부시게 맑은 날이었다. 8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장은 무척 안정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다. 본관으로 여겨지는 건물 2층에 오르자 어린이들이 동화책을 들고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연을 마친 동화작가의 사인을 받기 위해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것이었다. 동화작가는 밝은 표정으로 어린이들의 이름과 함께 정성스레 사인을 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다정한 풍경이었다.



다양한 책과 일러스트와 어린이들의 참여 마당을 둘러본 다음, 관계자 미팅을 위해 마당으로 나왔다. 그때 바로 눈에 띈 것은 차양 아래에서 쿠션을 베고 눕거나 엎드린 어린이들이었다. 자세히 보니 작가 한 명이 그림책을 펼쳐 들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너 명을 뺀 어린이들 대부분이 편한 자세로 듣고 있었다. 발끝을 까딱거리며 누워서도 작가의 말에 웃거나 호응을 보내기도 했다. '어른의 말은 바른 자세로 듣는 거'라는 교육에 길들여진 나에게 아주 선선하고 인상적인 풍경이었다.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신비주의적 권위 없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듣는 독서'를 하며 책과 만나는 어린이가 앞으로 책을 싫어할 리는 절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고 미디어에 빠져들어 고민'이라는 나라가 갈수록 많아지는 시대에 어쩌면 가장 편하고 쉬운 접근이 그들에게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지름길일 지도 모른다.

관계자에게 '에든버러 책 축제 700개 프로그램 중 어린이 프로그램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북스타트 운동을 처음 만든 나라답게 유아 독서와 문화복지,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킹, 독서 챌린지, 글쓰기 등의 프로그램 또한 무척 풍성했다. 또한 전날 <황석영 작가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지난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김주혜의 톨스토이문학상 수상의 쾌거로 K-문학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이때, <황석영 작가와의 만남>이 유럽의 독자들에게 우리 문학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2. 스코티시 스토리텔링센터

세계 최초의 현대식 스토리텔링 전용센터인 스코티시 스토리텔링센터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스코틀랜드의 옛이야기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는 곳이다. 또한 그곳을 찾는 누구에게나 스코틀랜드에 관한 전통구술문화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곳이기도 하다. 스토리텔링센터 다니엘 아베크롬비(Daniel Abercrombie) 팀장이 말해주었던 운영 철학은 '눈에서 눈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였다.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여행자의 격언이라는 이 말은 창작자, 배우, 관객의 깊은 공감과 폭넓은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 같다.

스코틀랜드 전통문화기금으로 운영되는 스토리텔링센터는 해마다 10월에 스토리텔링 축제 또한 주제별로 진행한다. 날씨가 추워지고 어두워지고 모든 축제가 끝난 시기에 비로소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스코틀랜드 출신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집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1층에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와 전시관, 스토리텔링 관련 서적과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것처럼 하나같이 여유로워 보이고 친절했다.

우리는 100석 규모의 네더보우 극장에서 지난해 센터 수상작인 <늑대가 태양을 삼킬 것이다>라는 공연을 관람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사냥으로 멸종된 늑대에 관한 이야기였다. 우리의 옛이야기에 해학과 익살, 욕심꾸러기 캐릭터가 호랑이인 것처럼 영국의 옛이야기에서는 영웅이나 악당 캐릭터로 늑대가 자주 등장한다. 지금은 인간의 사냥으로 멸종된 두 동물이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 속 친구들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숱한 예술작품에 지금까지도 호랑이와 늑대가 큰 소리로 호명되는 것은 그 동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미안함이 남아서인 줄도 모르겠다.





'노르웨이 선조들은 늑대 두 마리가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고 믿었다~'
로 시작하는 배우의 노랫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하다. 보름달과 소녀 그림이 선명했던 그림자극의 단출하면서도 정감 있던 무대 또한 눈에 선하다. 그리고 무척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시니어 관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옛이야기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시니어 층을 위해 우리 공연계도 옛이야기들을 무대에 올려도 좋을 것 같았다.

3.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

이야기의 도시 노리치에는 우리나라 작가들에게 익숙한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가 있었다. 중세 상인 로버트 톱스(Robert Toppes)가 1430년경에 발트해 참나무로 지었다는 드래곤 홀은 긴 역사를 담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대들보에 용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서 드래곤 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이 공간은 건축 당시에는 수입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무역회관이었다. 로버트 톱스 사후에는 주택, 술집, 상점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교류의 장, 문학 행사를 여는 축제의 장으로 쓰이고 있다. 매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20여 명의 작가들이 와서 작품 발표를 하거나 이웃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문학으로 연대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문예창작센터는 현재 문학 워크숍, 강연, 축제, 학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창작 이벤트 등 문학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상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문학 관련 전문가들이 국제적으로 협업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LX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서 2026년까지는 ILX가 '도약하는 시기'로 정해서 활동하는 중인데 영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우리나라도 함께하고 있다.

작가 집필실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 벽면 책꽂이에는 국립문예창작센터에 다녀온 우리나라 작가들의 저서가 꽂혀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4. 돌아오는 길

유서 깊은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여러 서점들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간 곳은 런던 해리포터 스튜디오였다. 해리포터의 마법 세계를 구현해 낸 세트장, 영화 제작에서 쓰인 실제 소품들, 특수효과 장치들이 실내 스튜디오와 야외 공간까지 빼곡히 차 있었다. 세계 각지의 여행객들 사이에서 어린이들의 감탄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살인적인 영국 물가에도 여행객이 끊이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 결국 문학이다. 문학 작품이 주는 재미와 감동이 독자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 보존도 사회를 지탱하는 귀중한 자산이 되지만, 무엇보다 문화 산업에 중요한 부분은 글, 문학이다.

처음 내가 북스타트 운동을 알았을 때, 영국은 정부와 관련 단체와 시민들이 손을 잡고 독서 교육을 충실히 해가는 나라, 작가들이 되도록 집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들을 마련해 가는 나라, 교통요지에 공공도서관을 세워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였다. 그때 그들이 많이 부러웠다. 하지만 달라졌다. 지금은 우리도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1300여 개의 공공도서관이 항상 독서 운동을 벌이고, 국가 주도하에 국제교류와 창작 지원사업, 문학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시대에 발맞춰 새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연수가 내 문학의 방향과 우리 문학의 좌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독서 시스템의 안정성이 피부에 와 닿았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의 문화 강국으로의 도약과 노력이 내 눈에 가장 먼저, 크게 들어왔다. 이는 그동안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온 예술가들의 노력과 국내 예술인 복지와 창작 지원, 국제교류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노력 덕분



일 것이다. 지속된 노력으로 문화의 위상을 바꿔 독서 문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앨리스가 체험한 이상한 나라의 '놀라움'은 토끼굴 속 나라의 새로움과 진기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질은 어쩌면 앨리스 자신의 변화-쪼그라들고, 커지고, 목이 길어지고, 당돌해지고-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문학 강국의 모습에 위축되어 쪼그라들고, 그들의 문화를 바라보며 생각이 커지고, 우리의 문화 콘텐츠와 현재 상황을 보며 우쭐해지고, 끝내는 당당해지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잠에서 깬 앨리스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간다. 영국 연수는 꿈속 이야기 같지만, 앨리스가 체험한 기억은 그녀에게 뚜렷한 사실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영원히 이 세상에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

노작홍사용문학관 조온윤 과장

“Stories are told eye to eye, mind to mind, and heart to heart.”

이번 영국 국외연수로 방문했던 에든버러의 스코티시 스토리텔링센터에서 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는 스코틀랜드 격언이다. 연수 나흘째 날에 만난 이 말을 나는 영국에 머무르는 동안 자주 떠올렸다. 한국과 달리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탓에 상대에게 손짓과 표정으로 의사를 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이야기가 눈에서 눈으로, 정신에서 정신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믿음만 있다면 영국은 물론 어느 나라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외를 나가본 경험이 적어 모국어가 통하지 않는 낯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이 짧은 문장 한 줄이 자꾸만 묘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곤 했다.

지난 연수를 회고하며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떠오른 데에는 영국이니 당연하게도 영어로만 진행되는 스토리텔링센터의 공연을 보고 ‘이야기는 그저 눈에서 눈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라고 스스로 다독여야 했던 때문도 있을 것이다. 공연의 내용을 전부 해득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자조적으로 한 말이지만, 자꾸만 강조하게 되는 이 문장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이날 스토리텔링 공연을 관람하고서 알게 된 건, 그 나라만의 문화에 기반한 유머와 뉘앙스가 담긴 모든 대사를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이야기꾼이 전하려는 이야기의 얼거리를 비롯해 슬픔과 기쁨, 분노와 두려움 따위의 감정들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그림자극과 애니메이션, 노래와 연주가 어우러졌기 때문도 있을 테지만, 무엇보다 무대에서 구연을 맡는 주연 배우, 그러니까 ‘스토리텔러’가 실감 나는 구연과 감정선으로 이야기 속 등장인물과 상황에 쉽게 이입하게끔 관객들을 끌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관람한 스토리텔링 공연 〈A Wolf Shall Devour the Sun〉은 한두 명의 출연자가 구술로 극을 이끌어가는 공연이었는데, 이런 형식 자체도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접해보지 못한 형식이라서 내게는 유독 새롭게 느껴졌다.





여기에 연극배우와는 성격이 분명하게 다른 듯한 스토리텔러라는 역할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찾아본 이날 공연의 스토리텔러는 Dougie Mackay, 노래와 연주는 Jemima Thewes라는 가수이자 작사가였다. Mackay 씨는 바이킹처럼 길고 풍성한 수염을 기르고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인 킬트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이야기를 손에 쥔 공처럼 갖고 놀듯이 그의 읊조리는 짧은 농담에 모두가 웃고, 격앙된 한 마디에 모두가 긴장하며 숨을 죽였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멋진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어린이 독자에게 동화책을 소리 내어 들려주는 동화 구연이나, 작가가 독자를 만나 자신의 작품을 소리 내어 읽으며 소통하는 낭독회 문화가 어느 정도 발달해 있다. 다만 아직은 콘텐츠로서의 공연화가 될 정도로 대중적인 문화로는 느껴지지 않기에 이곳 스토리텔링센터의 공연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 등이 좋은 모델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 전 미팅으로 만났던 스토리텔링센터의 책임 담당자 Daniel Abercrombie 씨에 따르면 그곳 센터에서 새로운 스토리텔러를 지원하기 위해 견습 프로그램으로 멘토링과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스토리텔러가 전문 분야 중 하나로 지원을 받고 양성되고 있다는 점도 한국에는 없는 예술 분야의 제도적 차이 중 하나로 참고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연에서 켈트족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구전 속 늑대와 늑대인간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지난해 상주작가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어린이 가면극 프로그램 <괴물들의 밤>이 떠오르기도 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 요괴에 대해 알아보고 저마다 자신을 상징하는 괴물을 가면으로 만들어 무대를 꾸며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스코틀랜드와 북유럽 지역 신화의 늑대인간이 곧 우리네 속담이나 설화에 등장하는 도깨비 격이었다. 이날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니 어느 나라든 괴물 이야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흥미를 끄는 듯했다. 나중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또 열게 되거든 공연에서 본 그림자 인형극 같은 연출을 참고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직 중인 시설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중 시 낭송회와 낭독극 등을 여는 낭독 동아리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사례로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단순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위라 여길 수도 있는 스토리텔링이 다양하고 전문화한 콘텐츠가 된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센터에서 소개해준 대표적인 행사로, 매년 10월에 이곳 스코티시 스토리텔링센터의 네더보우 극장을 주무대로 스토리텔링 테마 축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스코티시 인터내셔널 스토리텔링 페스티벌(Scottish International Storytelling Festival)을 열고 있다고 했다. 시기가 맞아 페스티벌을 직접 볼 수 있다면 더욱이 좋았겠으나, 이날 들려준 운영 사례와 공연만으로도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관람객들을 모으고 있을는지 짐작해볼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문학의 기원은 스토리텔링, 즉 구비문학일 텐데 지금은 기록이나 출판 매체와 떼려

야 뗄 수 없게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나르고 전해 듣는다. 문학으로 지칭되진 않더라도 부모의 유년 시절과 결혼 이야기, 아이들 사이에 사실인 양 떠돌아다니던 도시괴담, 어느 경영인의 성공 신화, 하물며 카페에 모여 나누는 신변잡기까지, 스토리텔링의 형태를 띠지 않은 삶은 드물다. 에든버러가 세계적인 문학 도시로 널리 알려진 데에는 문학의 근원적인 매체인 구전을 하나의 대중적인 문화이자 콘텐츠로서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문학 작가들의 활동이 단순히 작품 창작과 출판에 그치지 않고 낭독회, 책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자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넓어지고 있다. 작가가 독자를 대면해 눈에서 눈으로, 생각에서 생각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시와 소설을 전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문학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도 영상이나 공연, 전시 등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에, 여기에 발맞춰 문학 장르의 저변도 확장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인쇄된 사각의 지면을 넘어 일상의 문화 곳곳에 문학이 공존하는 모습을 떠올려본다. 스토리텔링, 다른 말로는 문학이 사람 대 사람으로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 감정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라는 점에서, 스코틀랜드의 오랜 격언은 지금도 살아 있는 말이겠다.

*

에든버러에서의 첫날 구시가지를 걸으면서는 놀라운 건축물도 하나 만날 수 있었다. 한눈에 봐도 주변 건물들 위로 웅장하게 솟아 있어 에든버러의 랜드마크임이 분명한 첨탑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단 한 명의 문학 작가, 에든버러 출신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월터 스콧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된 탑이었다. 월터 스콧은 우리나라로 치면 윤동주나 이상 정도의 인지도와 대표성을 띠는 스코틀랜드의 국민 작가라고 했다. 탑에 대해서도 좀 더 찾아보니 빅토리아 시대에 고딕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 높이가 약 61미터로 한 명의 작가에게 헌정된 기념비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건축물이란 타이틀을 지니고 있었다.



이튿날 방문한 에든버러 작가 박물관(The Writer's Museum)에서도 내부 공간마다 월터 스콧을 비롯해 로버트 번스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등 스코틀랜드 대표 작가들을 기념하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다. 기념탑에 이어 그들을 기리는 박물관을 보고 있노라니 이렇게

문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드높이는 곳이기에 문학의 도시라는 별칭이 따라붙는 게구나 싶었다. 재직 중인 시설이 시인을 기념하는 공간이자 복합문화시설인 터라 한 도시 혹은 국가가 그곳을 대표하는 문인을 기리는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이 들었다. 어느 작가를 기리는 기념물의 크기로 그의 문학적 유산에 대한 가치의 척도를 매길 수는 없을 테지만, 이 정도 규모의 탑이라면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속으로 정말 대단한 위인인가 보다 하고 경외심을 품게 될 것 같았다.

한편으로 나는 이번 연수가 영국의 시문학과 이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이길 바랐다. 어디까지나 시설 담당자로서 참여하게 된 연수이기는 하나, 시를 애호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그런 기회를 바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에든버러 일정 중에 만난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문학부서의 책임자 Alan Bett 씨가 주력 장르로 아동문학과 공상과학소설, 그리고 시를 소개했을 때 그 말이 유독 반갑게 느껴졌다. 한국은 물론 어느 나라에서도 시 앞에 주력이라는 단어가 붙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스코틀랜드에서도 시가 상업적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장르는 아니라고 했다. 시집이 높은 판매율을 띠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전통적인 문학의 양식으로서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시를 쓰는 시인들은 항상 많다고 했다. 덧붙여 스코틀랜드의 문학 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문학 작가를 초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모멘텀(Momentum) 프로그램과 함께, 최근에는 젊은 시인들이 에든버러를 찾아 시를 공연으로 재창작해 무대를 올렸다는 사례도 들려주었다. 문학이 지면을 벗어나 독자를 만났다는 데에서 개인적으로 흥미를 끄는 얘기였는데, 미팅 시간이 다 되어 구체적인 공연화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질문을 잇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 에든버러를 알리고 있는 단체인 에든버러 유네스코 문학도시 트러스트와의 미팅에서도 몇 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단체의 총괄 담당자이자 시인으로도 활동 중인 Harriet MacMillan 씨는 에든버러를 비롯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된 영국 내 도시들과 그곳에서 진행했던 문학 활성화 사례를 여럿 소개해주었다. 개중에는 엑시터에서 출판사와의 협업으로 정류장 곳곳에다 책 자판기를 설치해 도서 마케팅과 공익적 효과를 둘 다 잡았다는 사례, 에든버러에서 성벽을 활용해 문학작품의 문구를 미디어 파사드로 만들었다는 사례가 기억에 남았다.

특히 엑시터의 책 자판기는 한국에도 특유의 문고본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펭귄북스 출판사의 대표가 엑시터 시에 먼저 제안한 사업이라고 했다. 어느 날 그가 기차를 타기 전 급히 책을 구하고 싶었는데 살 곳이 없었던 경험으로 역마다 음료를 사듯 책을 살 수 있는 자판기를 아이디어로 제안해 실현한 것이다. 여기서 나온 수익은 다른 독서 프로젝트나 작가 지원사업에 재투자한다고 하니, 출판사 입장에서는 여러 프로젝트로 브랜드 평판을 높이고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의 성

과를 내고 시민들은 자판기로 책을 사 읽는 편의를 제공받게 되는 셈이었다. 출판사도 기업이기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순 없겠으나, 시민 복지를 책임지는 정부 부처와 출판사 모두 독서의 가치에 공감하는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협업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밖에도 MacMillan 씨와의 만남에서는 럭비로 유명한 웨일스의 한 지역에서 시인들이 럭비를 주제로 시를 창작하고 경기 전에 낭독했다는 일화도 들을 수 있었다. 럭비를 위한 시라니, 보통은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스포츠와 문학이 그런 방식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 어떤 물건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으면 한번은 눈길이 머물게 되듯이, 시나 문학에는 전혀 흥미가 없는 럭비 팬일지라도 럭비에 관한 시라면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였다. 이날 미팅으로 얻은 사례들은 모두 문학과는 거리가 먼 대중과 자연스럽게 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참고할 만한 것들이었다.

어쩌다 보니 에든버러에서의 이야기만 죽 늘어놓은 듯하지만, 영국의 또 다른 유네스코 문학도시인 노리치에서 보고 듣고 걸으며 얻어온 것들도 잊을 수 없다. 연수 닷샛날 일정으로 방문한 노리치의 국립문예창작센터는 손수 준비한 차와 선물로 우리를 가장 환대해준 곳이기도 했는데, 이전에 한국 작가들이 여럿 레지던시로 머무르다 돌아간 자취가 남아 있어 더욱이 반가운 기분이었다. 시민들을 위한 창작 워크숍과 문학 행사를 열고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내어주는 등의 운영 방식이 우리나라의 문학관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건물의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다. 국립문예창작센터의 별칭은 드래곤 홀(Dragon Hall)로 15세기에 한 상인에 의해 거래소로 지어졌고, 당시에는 지붕에 용 장식이 달려 있어 드래곤 홀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었다고 했다. 이후 상점이나 주택 등 여러 용도를 거치고 오랜 시간 술집으로 운영되다가 20세기에 공사를 거쳐 복원, 2015년에 이르러서야 노리치 작가센터로 인수되었다. 이후 2018년에 다시 노리치 작가센터에서 품을 넓혀 국립문예창작센터로 명칭을 바꾸며 지금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덧붙여, 드래곤 홀의 나무 기둥에는 그을음이 몇 군데 있었는데 바로 위치스 마크(witch's mark), 마녀 심판이 있던 시대에 마녀를 내쫓기 위한 일종의 주술로서 남긴 자국이라는 일화도 들을 수 있었다.





정원이 한눈에 보이는 별관에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는 레지던스 공간도 구경하고 보니 이전에는 크게 흥미가 없었던 해외 레지던스 사업에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다. 언젠가, 이곳 노리치의 국립문예창작센터에 레지던스 참여자로, 그게 아니면 관광객으로라도 또 한 번 올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겠으나 만일 이곳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들이 들려준 드래곤 홀의 연원이나 위치스 마크 같은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겠구나 싶었다.

런던의 영국도서관, 에든버러의 유네스코 문학도시 트러스트, 북 페스티벌, 스코티시 스토리텔링센터 등 다른 방문 기관이나 단체도 모두 비슷하긴 했지만, 특히 이곳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강조되는 듯한 단어는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킹이었다. 지역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문학이라는 매개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이곳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매달 노리치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참여 작가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문학을 통한 독자, 지역민과의 네트워킹은 국립문예창작센터 같은 시설뿐만 아니라 문학과 관련한 곳인 도서관, 서점, 출판사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문학 작가의 활동 양상이 작품 집필에 그치지 않고 낭독회나 책담회 같은 소통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듯이, 이제 작가에게 요구되는 역할 또한 자신의 문학 콘텐츠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동일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매개자라는 역할이 따라붙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참여했던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또 더더욱 발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

연수의 마지막 이틀은 런던에서 보냈다. 귀국하기 전 런던에서의 시간은 약간의 여유를 가지며 지난해 상주작가 지원사업과 함께 이번 연수를 정리해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시설 담당자로서 정란희 상주작가님과 합을 맞추었던 지난 2024년은 여러모로 뜻깊은 해이다. 한국인에게 2024년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해로 기억될 테지만 내게는 하나 더, 정란희 작가님과 함께하며 상주작가 우수시설에 선정된 해로 남아 있다. 물론 우수시설 선정은 정란희 작가님이 문학관 상주작가로서 보여준 열정과 전심에 의한 결과지만,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약간의 수고를 거들었던 내게도 이 일은 분명하고 커다란 기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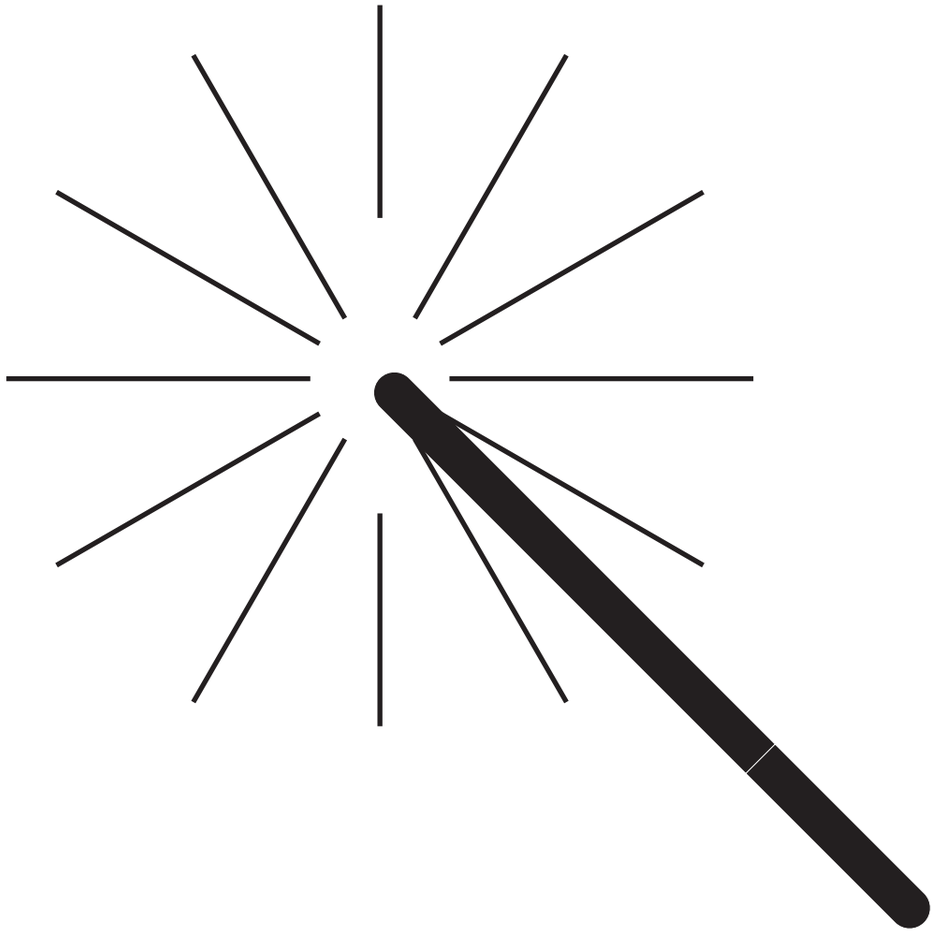
말이 씨가 되었던 걸까? 가끔 일이 몰려 힘에 부칠 때마다 작가님과 나는 지지난해 우수시설 선정 팀이 떠난 스웨덴 연수를 떠올리며 내년에 우리도 스웨덴엘 가자는 말로 서로를 북돋곤 했다.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주고받던 말이긴 해도 어쩐지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 스웨덴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작가님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면 언제나 '열심히' 그리고 '다정히'라는 부사를 양쪽 어깨에 달고 있다는 게 여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동화 창작 수업의 수강생들을 위해 수업 밖에서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프로그램에 온 어린이들을 위해 조그만 간식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던 그 마음이 우수시설 선정의 비결이라면 비결일 테다.



6박 8일 동안의 연수도 돌이켜본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해외를 나가본 적 없던 내가 그 먼 나라에서 여섯 밤을 보내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데에는 연수에 동반했던 선생님들의 숨은 노고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일 거다. 후기보다는 개인적인 소회로 빠지게 되는 듯하지만 연수 내 가까이서 함께한 그들의 사려와 대화로부터 배운 것들이 많기에, 앞에서는 부끄러워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들을 이렇게나마 남기고 싶다.

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나 전해보려 한다. 다시 스코티시 스토리텔링센터에서 들은 것들을 주워섬겨 보자면, 구전되는 이야기의 가장 큰 매력은 입에서 입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면서 점점 더 새로운 이야기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이야기는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각색되어 저마다 조금씩 다른 버전을 갖게 된다. 내가 쓴 후기 또한 영국에서의 엿샛날을 완벽히 그대로는 담을 수는 없고 어떤 부분은 장황해지고 어떤 부분은 생략하게 되었듯이 말이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이야기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왜곡이나 변질이 아니라 이야기꾼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탄생한다는 점은 이번 영국 연수의 숨은 의의이기도 하겠다. 이번 연수에는 우수시설 선정팀과 더불어 여러 일정을 계획하고 지원해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생님들, 통역과 인솔을 맡아주신 코디네이터님까지 모두 아홉 명의 일행이 함께했으므로, 우리는 모두 아홉 개의 이야기를 새로이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내 버전으로 주어진 영국 연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V. 참고자료



주요 방문기관 정보

런던

영국문화원 (British Council)

www.britishcouncil.org

1934년에 설립된 국제문화교류 기관으로, 교육, 예술,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국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및 전문성 교류를 통해 창의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 (The British Library)

www.bl.uk

1973년 설립된 영국 국립도서관은 약 1억 7천만 점 이상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지적 유산의 보존과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워드 온 더 워터 서점 (Word on the Water – The London Bookbarge)

www.wordonthewater.co.uk

1914년형 좁은 보트 위에서 운영되는 독립 서점으로, 런던 리젠트 운하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서적과 문학 문화 행사를 제공하는 독창적인 문학공간이다.

포일스 서점 (Foyles)

www.foyles.co.uk

1903년에 설립된 런던의 대표적인 대형 서점으로, 희귀 서적 판매 및 문학 기반 문화 행사 개최로 유명하다.

해처드 서점 (Hatchards)

www.hatchards.co.uk

1797년 설립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 영국 왕실 인증을 받은 역사 깊은 문학 공간이다.

셜록 홈즈 박물관 (Sherlock Holmes Museum)

www.sherlock-holmes.co.uk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 박물관으로, 빅토리아 시대 공간을 복원하여 문학적 몰입 체험을 제공한다.

다운트북스 서점 (Daunt Books)

www.dauntbooks.co.uk

여행 및 문학 전문서점을 지향하며, 서점 자체가 독립출판 활동도 겸하는 문학 기반 출판 문화 공간이다.

해리포터 스튜디오 (Warner Bros. Studio Tour London – The Making of Harry Potter)

www.wbstudiotour.co.uk

해리포터 영화 제작 과정을 공개하는 스튜디오 투어 공간으로, 문학 원작과 영상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 체험 장소이다.

에든버러

에든버러 북 페스티벌 (Edinburgh International Book Festival)

www.edbookfest.co.uk

1983년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문학 축제로, 매년 8월 다양한 작가, 출판인, 독자들이 참여하여 문학 콘텐츠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Creative Scotland)

www.creativescotland.com

스코틀랜드 정부 산하 예술·창의산업 지원기관으로, 예술가와 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정책 수립을 통해 스코틀랜드 창의 산업 전반을 육성한다.

스코티시 스토리텔링 센터 (Scottish Storytelling Centre)

www.scottishstorytellingcentre.co.uk

에든버러 소재의 이야기 예술 전문 기관으로, 전통·현대 스토리텔링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코틀랜드 구술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확산한다.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www.nls.uk

스코틀랜드 최대의 연구 도서관으로 약 2,400만 점 이상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역사와 문화 자료 확보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든버러 중앙도서관 (Edinburgh Central Library)

www.edinburgh.gov.uk/libraries

1887년 개관한 에든버러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정보 접근, 독서 프로그램 및 문학 행사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트러스트 (UNESCO City of Literature Trust)

www.cityofliterature.com

에든버러는 2004년 유네스코 최초의 문학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트러스트는 문학 기반 도시 정책, 작가 지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스코티시 시 도서관 (Scottish Poetry Library)
www.scottishpoetrylibrary.org.uk
1984년 설립된 시 전문 도서관으로, 시 문학 자료 제공과 함께 낭독회, 작가 워크숍 등 다양한 문학 활성화 활동을 전개한다.

에든버러 작가 박물관 (The Writers' Museum)
www.edinburghmuseums.org.uk
로버트 번스, 월터 스콧,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등 스코틀랜드 대표 문인들의 생애와 작품을 전시하는 문학 박물관이다.

노리치

노리치 국립문예창작센터 (National Centre for Writing, Norwich)
www.nationalcentreforwriting.org.uk
문학 창작 교육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제적 작가 교류와 디지털 문학 실험을 통해 창작 생태계 확장 역할을 한다.

워터스톤즈 서점 (Waterstones)
www.waterstones.com
영국 최대의 서점 체인으로, 각 지점별 큐레이션 및 작가 이벤트 운영을 통해 출판 생태계와 독자 연결을 강화한다.

노퍽 & 노리치 밀레니엄 도서관 (Norfolk & Norwich Millennium Library)
www.norfolk.gov.uk/libraries
영국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공도서관 중 하나로, 디지털·교육형 도서관 서비스를 선도하고 있다.

북 하이브 서점 (Book Hive, Norwich)
www.thebookhive.co.uk
독립 서점으로, 독자 맞춤 큐레이션과 문학 이벤트를 중심으로 지역 문학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한다.

연수 참여자 이력 및 소감

김미경 송파문화재단 거마도서관 대리
2009년 송파어린이도서관에 입사하여 현재 거마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외 공모사업 및 특화사업 기획·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 2024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전국도서관대회 우수 프로그램상 '도서관 명탐정', 2019년 서울시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선정단으로 활동하였다.

개인적으로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중에 가장 힘들었지만 또 가장 재미있었던 사업입니다. 영국에서의 여정을 함께 한 작가님과 담당자님들은 역시 좋은 이들이 만나 좋은 시너지를 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 멋진 분들이셨어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칠 때면 같은 마음으로 달렸던 반짝이는 순간들을 떠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김병운 중구문화재단 가온도서관 상주작가
2014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설집 『거의 사랑하는 거 말고』, 『기다릴 때 우리가 하는 말들』, 장편소설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산문집 『아무튼, 방콕』 등을 발표하였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가온도서관 상주작가로 활동하였으며, 2024년 상주작가 우수시설 작가로 선정되었다.

상주작가 지원사업 덕분에 작가로서도 독자로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무척 부러워하는 이 사업, 부디 오래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연수 다녀온 작가, 사서 선생님들, 그리고 알찬 프로그램 준비해 주신 문학지원팀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은정 중구문화재단 가온도서관 사서
2021년부터 가온도서관에서 생애주기 프로그램 및 인문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뜻밖의 기회로 좋은 분들과 함께 국외연수를 다녀오게 되어 정말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작가님들과 각 기관 담당자들께서 나눠주신 이야기 덕분에 문학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이 큰 의미로 남았고,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조온윤 노작홍사용문학관 과장
2024년부터 노작홍사용문학관에서 근무하며 출판, 강좌 및 도서관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2024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담당하였다.

2024년은 내게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이라는 넓은 창으로 빛나는 문장들을 발견했던 성장의 시간으로 남아 있다. 지난 연수에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눈에서 눈으로, 정신에서 정신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며 점점 새로워진다는 문장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왔다. 저마다 간직해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보도록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정란희 노작홍사용문학관 상주작가
동화 「우리 이모는 4학년」이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단추 마녀의 수상한 식당』을 포함한 단추 마녀 시리즈, 『행운 가족』, 『우리 가족 비밀 캠프』, 『우등생 바이러스』, 『아빠는 슈퍼맨 나는 슈퍼보이』, 『슈퍼보이가 되는 법』, 『우리 형이 온다』 등이 있으며, 청소년 소설로는 『엄마의 팬클럽』이 있다. 2015년 평화인권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나비가 된 소녀들』, 『무명천 할머니』, 『하늘의 독립군 권기옥』, 『오월의 주먹밥』 등을 통해 평화, 인권 및 역사적 주제를 다루는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노작홍사용문학관 상주작가로 활동하였으며, 2024년 상주작가 우수시설 작가로 선정되었다.

옆 마을에서 보아야 우리 마을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영국 연수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적 성과와 지위, 문화 강국으로서의 힘, 창작자와 독자의 열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국외연수를 통해 국가적 자부심을 느끼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독자와 세계 시민에게 높은 온도로 다가갔던 영국의 여러 기관과 담당자들의 활동 또한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부분에서 낯설고 놀라웠던 영국 연수는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달콤하게 남아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흥흥 송파문화재단 거마도서관 상주작가
그림책 작가로, 쓰고 그린 도서로는 『감옥에 갇히면』, 『무인도에서 보내요』, 『팔팔어묵탕』, 『구이꼬칫집』, 『들썩들썩 오삼불고기』, 꿀꺽 공룡 시리즈 등이 있다. 글을 집필한 작품으로는 『지루함 공장』, 『초조함 공장』, 『아빠의 술친구』, 『그렇게 나무가 자란다』, 변신 공룡 시리즈 등이 있다. 2022년과 2023년 주엽어린이도서관, 2024년 거마도서관에서 상주작가로 활동하였으며, 2022년과 2024년 상주작가 우수시설 작가로 선정되었다.

문학은 국경을 넘어 더 넓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쓰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독자들과 만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더욱 결연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김나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장
2010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략개발팀장과 국제교류부장을 역임하였다. 2024년 문학지원팀으로 돌아와 한국문학이 보다 단단하게 성장하고 더 많은 독자를 만날 수 있도록 문학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업무를 하면서 영국에서의 시간이 종종 떠오릅니다. 축제를 기획하고,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잇고, 문학창의도시의 비전을 설계하던 사람들. 역할과 위치는 달랐지만, 모두가 '문학'으로 무언가를 일구고, 독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욱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은 높아진 K-문학의 위상이었습니다. 한국문학이 단단히 제 목소리를 내고 있던 장면들이 내내 기억될 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여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대리
2024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에서 문학상 주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외연수를 준비하며 어떤 여정이 펼쳐질지 기대와 걱정이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보낸 8일 동안 '문학'이라는 단어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정성껏 일정을 함께 준비해주신 서미선 코디님께 감사드리며, 작가님, 담당자님, 팀장님과 함께여서 더욱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우수시설 국외연수(영국)

총괄
김나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장
김여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 대리

협력
서미선 아트세이지 대표
박윤조 주한영국문화원 아트팀 팀장

참여자
김미경 거마도서관 대리
김병운 가온도서관 상주작가
송은정 가온도서관 사서
조온윤 노작홍사용문학관 과장
정란희 노작홍사용문학관 상주작가
흥 흥 거마도서관 상주작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디자인
파이카(이수향, 하지훈)


한국문화예술위원회